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지급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5일은 음력 10월15일 병자년 동안거 결제일이다. 3개월 동안 전국 제방의 총림을 비롯한 선원에서 일제히 산문을 걸어 잠그고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진실로 생사의 큰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해 인천(人天)의 눈이 되어 일대사를 알게되기를 서원하면서… 그래서 안거 결제때 조사스님의 법어는 더욱 살아 숨쉬며 우리곁에 다가선다. 역대 조사스님들의 결제법어를 다시 듣는다. (편집자 주)

탁 끊어지고 툭 터져야

오늘은 천하 총림의 결제하는 날이오. 청경산 비구 나옹은 이름도 없고 글자나 형상도 없으며, 미오(迷悟)도 없고 수증할 것도 없으면서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옻칠 같은 그 한 물건을 여러분의 면전에 흩어 두고 싹을 치면서 자세히 보기를 두루 청하는 것이오. (나옹스님)

도를 배우는 자 무엇이 손잡이가 되는가. 저 화두를 드는 것, 이것이 손잡이가 되느니라. (中 득통스님)

부디 공안을 가져 생각으로 헤아려 알아 마치려고 하거나, 경서상에서 찾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반드시 탁! 끊어지고 툭!터져야 비로소 집에 돌아온 것이니라. (中 고매스님)

반드시 한 생각에 잘못을 알아서 알뒤가 딱 끊겨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참다운 정진이며, 참법으로 여래께 공양하는 것이다. (中 회암스님)

결제라 하여 대중이 운집하였다가 해제라 해서 도리어 대중이 흩어지니 이것이 또한 일없는 데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혜암스님)

천하의 납자들이 살과 뼈를 깎으면서 조사관(祖師關)을 뚫으려고 한다. 법다이 수행하면 본참공안이 자나깨나 한결 같으리라. (효봉스님)

오는 것도 즐거워 말고 가는 것도 서운하게 생각 말라.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웃고 싶으면 실컷 웃어라.(고봉스님)

모든 불보살 명호가 오직 심(心)자 하나 뿐이요, 모든 다라니가 오직 심자 뿐이더라. 그래서 심자를 천상천하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봐도 심자가 없더라. (춘성스님)

한사코 수행하는 운수객이 강연히 본래 마음 개달기를 구하네. 뱀 발을 그리자니 피곤만 더할 뿐 청산 녹수 깊음마저 저버리네.(경봉스님)

화두에 의심없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묵묵히 비추는 것은 귀신 굴이요, 문자(文字)는 술 짜먹은 찌꺼기니라. (전강스님)

의심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느때 어느 일루 어느 곳에서나 이 무슨 뜻인고? 이뭣고? 간절히 의심하고 반성하여 살필지어다. (고암스님)

"경복궁 불교유물 제자리에"

교계 강력요구…문체부·중앙박물관 "긍정 검토"



◇경복궁에 성보문화재가 조경물로 전락돼 있는 것은 처욕이라며 불교계가 또다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경복궁 안의 석탑, 부도 등 불교유물들을 불교계에서 돌려받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유물의 현 소유자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금주초 지방 박물관으로 공문을 보내 유물들의 반환유무를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 실시를 시달했다. 박물관측은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유무를 타진키로 해 불교계로의 반환전망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지난 15일 문화체육부(장관 김영수) 문화재관리국(국장 정기열)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공문을 보내 "억불정책의 상징인 조선시대 정궁 경복궁에 불교의 성보문화재가 조경물로 있는 것은 치욕"이라며 불교 연고지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응스님과 문사부장 성관스님은 지난 19일 문체부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들의 사리탑인 부도가 박물관의 야외조경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불교 모독"이라며 반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측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과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접촉까지 가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강경한 반환 거부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 중앙승가대, 강원지구청년회의소, 원주문화원 등과 남양주 봉인사 등이 정부에 대해 유물반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물의 대부분이 피사지에서 옮겨왔고 도난우려 등 보존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화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불교계가 내부안정으로 문화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관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연고 폐사지에도 절들이 복원되는 곳이 많아 관리에 하자가 없을뿐더러 대부분 2~6m에 이르는 석탑등 거대한 유물이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 따라서 상태가 좋고 관리자가 확실하다면 유물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문화재위원인 한병삼씨('97 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장)는 "유물자체를 잘 조사해 상태가 좋은 것은 하나씩 하나씩 연고지로 반환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전사법등 3개 법안 국회의원 21명 발의

불교계 숙원인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민회의 연등회소속 국회의원을 비롯 각 정당 불자의원 21명의 연명으로 의원발의됐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건축법등 3개법안이며 조계종 총무원이 정각회에 요청한 개정안 가운데 농지법은 제외됐다. (관련기사 3면)

25일 전국사암 동안거

불기 2540년 동안거가 지난 25일 봉도사를 비롯 총림과 전국의 선방에서 결제됐다. 이날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 총림의 방장,제방의 조실스님들은 법어를 통해 수행 정진을 독려했다.



◇전국 주지 결의대회에서 3천여 스님들은 민족문화 훼손과 사찰환경 파괴는 절대 안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사찰환경 훼손 절대 안된다"

전국주지결의대회 3천여스님 개발행정 각성촉구…종정교시 내려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가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민족문화 수호와 환경보존을 위해 종단소임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선언하고 "안으로 개발응을 위해 정진하고 그만큼의 성취를 사바세계에 회향하자"고 호소했다.

이에앞서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지계청정 △수도정진 △보살도실현 △교화군생 △민족문화수호 △환경보존 △종단자주화 등의 종정교시를 내려 결의대회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관련 마당극으로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 본말사주지스님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자행되고있는 사찰환경파괴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 행정당국의 무원칙한 집행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심각한 민족문화 훼손과 자연환경의 파괴사태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불교관계법령 개정 △사찰환경 파괴하는 사업 백지화 △가야산골프장, 모악산 개발계획 백지화 △고속철도 경주역사 시 외곽설치 △문화유산보존예산 증액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강원통목사 김몽은신부 등 종교계와 정치, 문화등 각 사회단체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와 사찰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정일스님

◇김종규회장
동참해주신 분
△정일 선학원이사장(5구좌) △김종규 삼성출판사회장: 청양중학교(3구좌)
(11월21일 현재 총 536구좌 접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1구좌 10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인각사지 복원 물거품될 듯 19면
'참사람결사' 서옹스님 법어 8·9면
기획연재-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별지부록 법정양편 발행 4면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30年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洋藥品의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효능·효과: 피로회복, 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용량 1일1병1~2회
医藥品
일양약품

사 설

선수행에 더욱 매진하자

25일은 음력 시월 보름 동안거 결제일이다.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불자들, 특히 출가사문은 해마다 두번씩 여름·겨울을 맞아 안거에 들고 있는데 이번 동안거 결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결의에 차 있는 것 같다.

조계종 개혁종단이 발족된 이후 승가대학과 학림, 승가대학원의 설치법을 개·제정하여 규정에 맞는 교학교육의 제도가 확립된 데 이어 선원교육이 체계화되어 실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종단의 미래가 교육발전에 있다는 점을 염려해온 터에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급 1·2, 중급 1·2의 안거 학제를 세우고 교과과정에 의한 학습과 선(禪)실습으로 체계있는 선원교육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선종을 표방하는 전통 강원의 교과과정이 선수행의 기초과목 위주로 짜여지기는 했지만 선원에서의 교과과정이 설정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교육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해인사가 기초선원으로 확정되었고 동화사, 마곡사, 범어사, 기기암, 축서사 등도 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니 한국불교 선원의 교육체계 확립은 불교의 미래를 염려하던 불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신심을 불어넣고 있다고 본다.

'부처님 알대기'를 비롯 사미율의 습의 좌선의 등과 함께 특강을 실시한다니 승가대학(강원)에 이어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기본 교육기관이 자리를 잡아갈 전망이다.

또한 조계종 전 종정 서옹스님이 백양사 고불총림에 본부를 둔 '참사람운동'을 펼치기 위한 도심에서의 대형 법회를 열고, 참선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이는 조계종의 대 사회적 표어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도 부합되며, 동국대학교의 '참사람 만드는 열린 교육'이란 교육방침에도 부합하는 운동으로 살아있는 불교의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오는 11월 29일(음 10월 19일)은 근대 불교사에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만공스님의 50주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계기가 돼 불교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교계 정서가 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수행풍토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실현하려는 준비단계에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졌다가 혹시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승가대학(전통 강원)의 강사조차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기초선원의 강사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런지 자못 염려스럽다.

지금까지 선원생활의 누습에서 볼때 상당부분 형질의 변화가 마찰없이 수용될 수 있을런지도 걱정스럽다.

올곧은 수행자적 교육 없이는 올바른 포교와 교화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질과학의 고도 발달로 황폐해져 가는 정신문화 속에서, 인간의 혼미를 깨우쳐 참나를 찾아 광등과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수행이 곧 참선의 길이다. 이 혼탁한 시대에 참사람 되는 참선교육이 착오없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종단과 신도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부담이 가중된 높은 기대에 앞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열린마당

불교복지 성공사례



◇지난 1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교계 최초로 우수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 18일 교계 최초로 올 한해동안 부처님 자비의 뜻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준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3편를 선정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청보리봉사단 자비실천활동사례'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노인의 자립지원 서비스 '은빛농장' 운영',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의 '단체결연사업'이 그것.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기 나름대로 지역적 복지욕구와 시설에서 파악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교적 전문성과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수복지프로그램의 발굴, 홍보는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와 정보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삼전복지관 청보리봉사단

송파구 53개 중·고교 연계프로 마련

조직·체계화 갖춘 다양한 봉사실천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됐다. 이같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송파구내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8개교와 연계해 즉각 '청보리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확립과 성숙된 인간성 회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한다는 목적아래 청보리봉사단을 출범시킨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일시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봉사단의 조직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접수→사정→봉사활동 사전교육→봉사활동 전개→사후관리→봉사활동 종결모임 등의 단계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외·내부 봉사활동,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 봉사자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나눠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내부봉사활동은 주민도서실봉사,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역홍보활동, 홍보지 작성 및 홍보물 팩스로 보내기, 사회복지사의 창의적 활동을 통한 소그룹활동, 통계작업 등 제반업무보조, 자원재활용(분리수거), 물리치료실봉사, 사무봉사, 관내 및 야외청소봉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작봉사, 방과후 공부방봉사, 어린이집봉사, 특기활동, 식단준비활동 등이다.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으로는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소쩍새마을 봉사캠프와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단파견으로 외부봉사활동을 마련했다.

봉사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봉사자를 위한 특별활동으로는 종결캠프, 청소년문화제 등을 마련했다.

청보리봉사단 프로그램을 만든 사회복지사 이미영씨는 "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신청자와 학교추천에 의한 신청자간의 봉사활동 수행능력을 고려, 차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속초복지관 '은빛농장' 운영

재가노인 일거리제공 무력감 해소

농작물 수익금 분배 경제적혜택도

'은빛농장'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의지가 높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소일거리 제공해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1백20명의 65세 이상 재가노인 중 참여를 희망하는 15명을 클라이언트로 했다. 프로그램은 주 3회정도 현장(신흥사에서 무상대여한 속초시 노학동 일대 밭 5백여평)을 방문해 직접 밭일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노인들을 보조하도록 배려했다.

클라이언트는 1년 단위로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직접 밭갈기, 고랑만들기, 파종하기, 김매기, 농약살포를 시기에 맞춰 실시해 농작물을 수확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경작한 땅에서 거둬들인 감 메밀 알타리무우 쑥갓 상추 등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에서 자체 수용하거나 김장김치용으로 시중판매한다. 또한 7월중에 수확한 고구마를 속초시 13개동 노인회관에 전달해 자비를 실천하는 등의 간접포교에도 일조했다. 또한 수확물의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노인들에게 전액 배분해 경제적 혜택까지 경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이경미과장은 "노인공동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참여노인들의 휴식공간(원두막) 확보와 흥미유발을 위한 오락프로그램 등의 소프로그램개발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확물을 화폐단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로가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은빛농장'은 속초시의 모범이 돼 관할시청 사회과에서의 취로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두송종합사회관은 성인 실업자 28.8%가 거주(복지관 95년 조사결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다대2동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관은 비관적이고 자포자기한 소년소녀가장 및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 11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단체결연모임 사업'을 벌였다.

'단체결연모임'은 성인남녀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형성 속에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가족구성원과의 역할상을 학습하게 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97년 7월까지 1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평균 3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월에 벌인 프로그램은 '대화의 장'으로, 자원봉사자, 참가대상아동들간의 상견례와 단체결연모임 이름찾기 등의 순

두송복지관 단체결연사업

봉사자·불우청소년 정나누기 결연

사회적응력 고취·탈선예방등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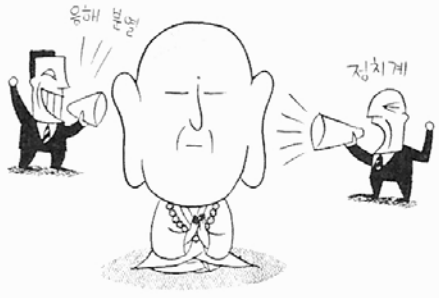
서로 진행했다. 또 9월에는 인근지역의 볼링센타에서 볼링경기를 통해 회원들간의 관계형성 및 단합된 모습을 다졌다. 10월에는 부산 어린이대공원으로의 가을야유회를 개최했다. 야유회는 사회복지사가 트인 공간에서 회원들의 생기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따른 각자의 재능과 능력계발을 돕는 계기가 됐다. 또 각 모임마다 생일잔치를 실시, 구성원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로 삼았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향후 비디오감상, 송년파티, 낚시, 독서토론회, 견학, 자원봉사활동,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사생대회, 5분 스피치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부정적인 생활태도을 개선하고, 의식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호혜적인 가족관계를 유도하고, 자기주장능력의 양성은 물론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돌부처가 됩시다

목어

"벼룩의 간을…"

"벼룩의 간을 내먹지…."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파탄에 빠뜨린 한국의 취업사기행각이 뒤늦게 보도됐다.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발표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 2백만명중 직간접 피해를 본 사람은 40만명에 이른다. 피해액은 우리돈으로 3백30억원, 화폐가치 기준으로는 1조원이 넘는다. 9월23일부터 11월8일까지 46일간 접수된 이 신고건수가 '직접 피해' 건수의 절반 정도라니 더욱 어이없다.

"저는 연변에 살아요. 지난해 1월 중국여행중 병을 얻은 한국인 이정석씨(33)를 다섯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치료비까지(약 3백만원) 대주었지요. 지난해 4월 은혜를 갚겠다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씨는 한국방문을 주선하겠다며 사람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주변에서 희망하는 17가구로부터 수속비 27만위안(2천7백만원)을 모아주었습니다. 그후 이씨는 연락이 끊겼어요."

연길에 사는 조선족 동포 김채순씨(61·여)는 '빚쟁이 등쌀에 자녀 3명이 이혼당했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다'고 고발장에서 말하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이 고국의 사기덫에 걸려 자살·정신이상·가정파탄 등의 고통을 겪고있는 이야기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도 TV추적에 걸린 한국의 한 브로커는 화면에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자기변명을 늘어놨다.

'남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내눈에 핏물난다'는 준엄한 인과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조선족 그들은 잘사는 고국 남한을 동경했다. 그런데 그 희망에 부푼 가슴에 피멍을 들였으니….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 '보복'을 말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서명에 들어갔다.

정부는 눈멀고 귀먹었는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왜 몰랐단 말인가. 늦었지만 조선족 동포들이 조국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민족애를 보여주자.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미리 미리

그 시기가 언박해서야 비로소 기욱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거나 다름이 없다. 미리부터 기욱인 노력이어야 할 일을 다한 것이다. 〈법선다양문경〉

협찬 중계동 무진법장사
주지 석법장
TEL.(02)932-2333

민족사판 〈불교경전총서〉는

불교경전

우리시대의 새로운 대장경입니다.

01 화엄경 김지견 역 값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 값6,500원
03 묘법연화경 이재호 역 값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 값4,5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 값9,5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 값8,500원
07 정토삼부경 法頂 역 값6,500원
08 범망경·지장경 一指 역 값5,5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 값8,500원
10 백유경 현각 역 값6,500원
11 부모은중경(관음경·우란분경) 一指 역 값5,5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 값5,500원
13·14 아함경①② 돈연 역 값 1권 7,500원 2권 7,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 값6,5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 값7,000원
17·18 밀린다왕문경①② 동봉 역 (97년3월 간행)
19·20 본생경①② 이이렁 역 값 1권 8,500원 2권 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 값6,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근간) 값8,000원

*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합시다!

석지현 스님 에세이

바람의 길

시인이자 〈선시감성사전〉을 준비하고 있는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는 이 책 한 권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세이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작정이다.
그 이유는 이런저런 세속사들이
모두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보다는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중생으로서는 지고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국판 270쪽/값 5,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한국의 전설적 선승 경허선사 이야기!

경허선사
鏡虛禪師

이홍우 지음

탁월한 선지, 막행 막식 그리고 질풍 같은 선승의 삶을 산 경허선사!

64세, 그의 만년은 뜻밖에도 유형지인 갑산 웅이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스승의 입적 소식을 들은 제자 만공과 혜월이 그의 무덤을 파고 다시 다비를 했다.



어느 여름날 경허스님은 제자 만공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걷다보니 다리가 아픈 만공이 쉬어가자고 졸랐다.
그 말을 들은 경허스님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네의 볼에다 "쪽" 하고 입을 맞추었다.
순간 동네 청년들이 "저 중놈 잡아라" 고함치며 달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단숨에 커다란 고개를 넘어 능선에 다다르자 스승 경허가 만공에게 물었다.
"이직도 다리가 아프냐."

신국판 288쪽/값 6,800원

경허선사의 생애를 은은한 필치로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필자 이홍우 씨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

대선바람 정략에 멍드는 불심

종단진흥회 조찬법회 파장과 향후전망

98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불교표를 겨냥한 정치권의 여야공방이 뜨겁다. 종단진흥회(회장 일공)가 지난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기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를 전후하여 시작된 불교계 일련의 움직임은 교계 내부문제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불교계 끌어안기' 싸움으로 번져 서로 불교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며 비방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분위기는 교계내부의 분열모습으로 비쳐지기까지하고 있다. 심지어 종단협과 진흥회, 또한 조계종 개혁·수구 세력간의 갈등양상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지난 18일 오전8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를 개최했다.

신한국·국민회의 "불교계 분열책동 말라" 상호비방

종단협-진흥회 갈등심화 우려…조계종 신구세력도

"정치시류 타지말고 화합해야" 자성 목소리

이러한 움직임은 15일 결의한 조계종 중앙종회의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됐다. 조계종 종회는 "최근 정부여당의 고위당직자가 추진하는 불교계 분열책동은 헌법의 정교분리정신에 어긋나는 국헌문란행위다"며 "당사자는 불교도앞에 사죄하고 대통령은 당사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회의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불교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편협된 종교정책과 불교탄압으로 불심의 이동에 위기감을 느껴 신도도 아닌 사람이 불교계에 개입하여 불순한 공작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이날 19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교계내의 단체간 움직임을 놓고 우리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와 불교계를 이간시키려는 술수"라고 반박했다.

종단진흥회도 지난 20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진흥회는 순수한 종교친목단체일뿐 정치권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부 언론의 신한국당 밀착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등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단진흥회는 앞으로도 종단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흥회도 순수 친목단체로 존립시키겠다며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법회도 호국불교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진흥회 출범이 94년 체탈 도첩된 서의현 前총무원장의 불교계 복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단아래 해종행위자들이 주도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고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기원법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행사불참 요청을 해왔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종단협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18일 진흥회 기원법회와관련 제재조치를 취하는등 진흥회건을 일단락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치권은 내년 대선체제로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한국당의 경우 이달말 대선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본격출범 예정인 '불교팀'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직능위원장 관리하에 불교팀을 두고 특별관리인을 비롯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불교팀은 대불교계 접촉과 불교공약 개발등이 중점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원법회 이후 교계 분위기가 일정정도 종단협 종단진흥회 반목과 맞물려 내년 대선까지 미묘하게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불교계는 화합을 전제로한 자기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불교계를 '모래알 불심'이라 불릴만큼 비하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해바라기성 불교지도자 불교권인사들의 정치행태는 정치시즌만되면 머리를 들어 대다수 불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특히 진흥회건으로 정치바람에 가속되어 무수한 추측을 남발케 하는 불교분열 모습은 수행종교인 불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악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단협과 진흥회는 불교 지도자답게 내부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불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사찰수행환경·문화재 보존 '청신호'

불교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원 발의 의미

지난 20일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불자의원 21명에 의해 발의된 것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불교관련 악법이 비로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불교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국가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병역법, 농지법등 10여개 법령으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 건축법등 3개 법령이다. 이들 법령들은 입법당시부터 불교계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불권부당하다는 지적과함께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가 조직적이고 구체화된 것은 94년 조계종개혁때부터로 총무원은 시정되어야할 국가법령집('96년 3월)을 발간하는등 종단차원으로 적극성을 보여왔다.

이번에 의원발의된것도 지난 10월22일 국회정각회 회장단과 3당간사를 초청, 불교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신한국당)는

전사법·자연공원법·건축법 등 3개 법령

정각회·연등회원 주도…올 회기중 통과될 듯

여·야간의 이견은 없을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회에서의 불교관계법 개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1일 문체부 차관주관으로 내무부 문체부 건교부 농림수산부등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불교계가 요구하는 법개정에 대한 행정부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무원이 제안한 법개정안 검토에 들어갔고 이번에 국민회의 연등회소속 의원들이 의원발의에 앞장섰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등회 간사 조성준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회기중에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위해서는 20일을 넘길수 없어 연등회가 서둘렀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개정안은 불교계뿐 아니라 공익성을 띠고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해 서석재 정각회장은 "행정부안과 불교계안을 검토, 최종안을 만들어 3당 공동발의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불교관계법 개정은 의회뿐아니라 정부도 적극 동참하고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엽 기자

개정법안 주요내용

△전통사찰보존법:사사지(死寺地)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2조 제8호)하고 지정된 사사지에 전통사찰을 복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전통사찰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찰전통환경과 문화유적공간을 보존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토록함(안 제9조). 사사지복원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보조할수 있도록함(안 제14조)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의 수입중에서 일정비율을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 소유자인 사찰 등에 지급할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사용수익 제한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 43조 제1항).

△건축법: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시론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김 용 운
〈한양대명예교수·본지논설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지만 최근에는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하는 소지진이 빈발하고 있다. 우리의 "괜찮아요"의 사고가 가뭄이나 태풍, 지진까지도 그때만을 넘기면 그럭저럭 살게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하였고 변덕스러운 일기에만 운명을 맡기는 마음과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식으로 웬만한 허물이면 그냥 보아 넘기는 무딘 신경을 키워왔다.

나라망치는 공직자 비리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전통사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재활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부실한 수십 종의 대형건물이 즐비한 현대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무사할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 요즘의 부패는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제대로 사정조치를 한다면 남아있을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이승만의 망명, 박정희의 암살, 전두환 노태우의 형무소행,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불행한 결말을 맺었다. 또 전 국방장관 5명은 줄줄이 파면되거나 뇌물사건에 연류되어 좌초되고 말았다. 한때 양심적인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도 선거에서 큰 돈을 풀었는데 재직 당시 얼마나 돈을 모았을까. 언론은 권력을 옹호하고 약한자에게는 항상 혹독했다.아무리 돈을 많이 챙긴 권력자라도 "한푼도 안 먹었다"며 배짱을 부려서 그 당시만 모면하면 무사하다. 이들 부패와 부조리의 근본 원인은 권력층이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현대적 상황에까지 끌어들인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왕조는 가문국가였으며 명예, 권력, 경제력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었다. 조선시대 권력자의 목적은 '종묘사직'이라 첫째가 자기 조상과 자손의 안녕이었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국민모두에게 균등한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어 지도자에게는 책무의식(nobless oblige)이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명예, 권력, 경제력'이 평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권력자는 솔선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어 '세대교체'를 가장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대부분이 병역 미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먼저 도망가 버릴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말기 국운이 기울었던 이유는 가문중심의 세도 정치 때문이었다. 이 역사적 교훈은 완전히 외면하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중심의 가문정치, 남한은 한때는 대구 지금은 부산 중심의 세도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자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가문,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수준은 국민의 윤리성을 어김없이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층은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논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번이라도 치러 보았는지가 의심스럽다. 박정희 정권 이후 역대 정권은 지역차별을 권력창출의 수단으로 삼아 왔으며, 선거민의 원색적인 감정에 연합하는 정책만을 실시해왔다. 지역편중은 권력의 원초적인 부패의 온상이며 국민전체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당근에 눈이 먼 선거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유형원은 일진난 당시 함경도민이 조선의 왕자를 붙잡아 왜군에게 넘긴 사실을 두고 "함경도민이 조정으로부터 천시받았으며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은바 없었음이 그 원인이다"라고 간파했다.

예전의 가문중심 사회에서 조차도 소외계층은 반항적 태도를 취했다. 하물며 요즘 같이 같은 의무와 균등한 권리를 갖는 국민국가 국민이 소외감을 갖는다면 반항적 태도는 더할 것이다. 권력층을 의심하는 공무원은 사명의식을 상실하고 소외계층에게는 지존파, 막가파 등이 보여준 자학적인 의식을 조성했다.

'잘살기' 보다 '보람' 찾아야

각 시대마다 사회에는 그 체제에 어울리는 이상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지도계층의 태도는 그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이며, 정보화의 물결속에 세계화를 이상으로 삼고있다. 우리의 이상은 국제사회에서 긍지를 갖고 안으로는 질 높은 문화국민로서의 인간다운 보람을 찾는 일이다. 이제는 물질 숭배의 "잘 살아보세"의 주문이 "보람있게 살아보세"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 ⑨⑨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을 밟는다. 태어나서(生) 형체를 이루고(住) 변화의 과정을 거쳐(異) 사라진다(滅).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형체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진다. 생주이멸 대신 성주괴공(成住壞空)이란 말도 쓴다. 형체가 드러났다가 무너져 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인간도 우주도 예외는 아니다. 사대가 뭉쳐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대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회귀한다.

우리가 즐겨 쓰는 세간(世間)이란 말의 '세(世)는 가훼괴(可毁壞), 천류(遷流)라는 뜻이다. 닳아지고 무너지는 것, 바뀌고 흐르는 것이란 의미이다.

옛사람들이 세상모습이나 인생살이를 일컬어 부운(浮雲·뜬구름)같다고 한 것은 허무의 읊조림이 아니라 실상을 바로 본 나머지 내 뱉지 않을 수 없었던 말이다.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로 흩어지듯 형상을 지닌 모든 것,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또 그렇게 사라질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드러났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아하고 사라졌다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더구나 거기에다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평가를 보태어 울고 웃고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불법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다만 반복되는 과정의 모습일뿐 슬퍼하거나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태어남이란 곧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죽음이란 곧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사실 어느 누구도 영생하는 이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길어야 1백년 안쪽에 다 사라지고 말(근원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태어나(生) 자라고(住) 늙어서(異) 죽는(滅)과정을 놓고 보면 태어남은 죽음에 이르는 시작이고 늙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우리가 공력을 들여 성취하고자하는 일들도 예외없이 다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는다.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닳아지고 무너질것, 바뀌고 흐를 것에 불과하다. 고로 그 자연스런 흐름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써도 결과는 자명하다. 시간속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거대한 제국도 그렇게 사라져 가는 데 한 인간의 작품이랴.

불법이 허무를 가르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 생주이멸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고 흐름에 충실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말한다. 매 순간이 시작이요 오늘만이 영원하다는 삶, 시작은 좋고 끝은 나쁘다는 그런 관념을 내 던지고 오로지 지금의 행동으로 남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고로 삶은 그대로 수행과정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 마디를 지어가며 거기에 스스로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있지만 불법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성공·실패가 아니라 다만 수행인 것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와 미래에 묶여 살고 있다. 자신의 업적·공과, 자신의 미래에 현실보다 더 큰 비중을 둔다. 그때문에 돌아보며 자만 또는 좌절·회한을 씹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희망 또는 불안에 젖는다. 그러나 과거는 오늘에 접목되어 있고 미래는 오늘에서 출발한다.

당연히 지금, 여기가 소중하고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삶의 과정은 매 순간이 시작이다. 삶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그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협찬 : 권 혁 상

법회 안내

청수사(02)816-129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자성신공법회 매주 목 오후6시

안청사(02)292-2439

인등기도 매월 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보광사(0348)942-7700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철야기도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0431)273-6946

정기법회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법형제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4시30분
심근회법회
매월 첫째주 화 오후2시
심이회법회
매월 둘째주 화 오전10시30분
심원회법회
매월 셋째주 화 오전10시30분
심선회법회
매월 넷째주 화 오전10시30분

천불암(0417)64-3223

큰스님초청법회
매월 3일(음)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직지사(0547)436-3174

거사림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2시
관음회법회
매월 19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회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전6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영각사(0345)498-770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안산 운전기사회법회
매월 둘째 화 오전11시
거사림신행법회 및 사찰순례

연호사(0356)85-0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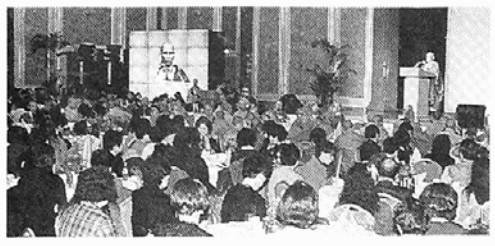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진각종 제8대 각해총인 추대식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21일 하월곡동 총인원 대강당에서 혜초(태고종총무원장) 홍파(관음종총무원장) 보인(진언종총무원장)스님, 추미애의원(국민회의)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각해총인 추대식을 개최했다. 각해총인은 법어를 통해 "심인을 밝게 깨치면 계층간의 갈등을 녹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했다.



청담문화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청담문화재단(이사장 동광·도선사 주지)은 지난 20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경과보고와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 청하 월주 설정스님을 비롯 김명윤 권익현 하순봉 주양자의원, 송석구 동국대총장, 황명수 동국대총동창회장 등 7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故 장상문거사 4주기 추모법회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과 불교방송 초대사장을 역임했던 故 장상문거사 4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21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거행됐다. 불교방송 종하이사장, 진흥원 서돈각이사장, 천태종 도원총무부장, 박완일 전국신도회장 등 교계인사와 진흥원 불교방송 대원정사 대원회 임직원 등 1백여명이 자리해 고인의 유지를 기렸다.



무료양로원 소향원 개원

무료양로원 (사)소향원(이사장 정무현)이 지난 20일 개원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영조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임홍학(화순군수), 김두언(광주·전남 불교신도회장) 등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순군에 위치한 소향원은 건평 2백17평에 방, 목욕탕, 물리치료실, 외무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교차로

창일어린이집 개관



월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창일어린이집(종로구 창신동)을 개관했다.

해인승가대 동문회장에



설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지난 15일 해인승가대 총동문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지역 중고교 합동수계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스님은 오는 27일 구룡사에서 개최되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합동수계법회에 수계법사로 참석한다.

청소년 환경지킴이 창립식

성타 공해추방운동 불교인 모임 회장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지난 17일 수덕사에서 제2차 사찰환경법회 및 청소년 환경지킴이 창립식을 개최했다.

아쇼카 석주발견 100주년 법회



도문 세계불교성도회 이사장(대각사 주지)은 오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팔 룸비니동산 아쇼카석주 및 카필라성에서 아쇼카대왕 석주 발견 1백주년 개념법회를 봉행한다.

삼화사 약사전 준공식



원행 삼화사 주지(조계종 종회의원)은 오는 12월 4일 삼화사에서 약사전 신축준공과 약사철불 복원 봉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

보각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최근 사회복지관련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호를 발간했다.

승가대 동문 송년의 밤



무상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장(봉은사 주지)은 오는 12월 5일 오후5시 리베라호텔에서 중앙승가대학동문회 송년의 밤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승가대 학생회장에 피선

무량스님(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은 지난 19일 중앙승가대학 제17대 학생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사회 인간관계' 특강

김종규 삼성출판사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은 지난 25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인간관계 특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구미 불교단체 '송년의 밤'

문대식 구미불교신도연합회장은 오는 12월 4일 오후7시 구미관광호텔 연회장에서 구미불교 신행단체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불교TV 주식 1억원 청약



대행 한마음선원장은 지난 18일 불교TV 주식 1억원을 청약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영상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불구 노모봉양 네 조카 돌봐

제3회 효자효부 대상 곽홍신 불자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큰 상까지 받게되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KBS문화사업단이 공동주최한 제3회 효자효부대상 수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곽홍신씨(51.배명고교사)는 효도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곽씨는 자신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면서도 96세의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 한달에 두차례는 어머니를 모시고 누나와 형님댁을 찾아 외로움을 덜어준다. 그런가하면 66년 형님이 어린 4남매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자 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곽씨는 3년전에야 27평 아파트를 마련해 어머님과 세 자녀에게 방 두개를 모두 내주고 부인과 함께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불효한 사람은 승단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정도로 효도를 당부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와 조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운 기자

거사불교 활성화·청소년에 관심

제2회 포교사고시 수석 김동균 최고령 이형식씨



◇김동균씨



◇이형식씨

"직장법회를 비롯한 거사불교 활성화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라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제2회 포교사고시에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은 김동균씨(42·수원지방법원 등기담당관). 한때 출가에 뜻을 두고 인천 용화사의 전강스님을 찾아 시봉을 하기도 했던 독실한 불자이다. 김씨는 현재 신흥사 수련원 지도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지역 법원 불자들의 모임인 '법조인 불자회' 창립준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국대대학원 선학과에 진학해 불교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최고령으로 합격한 이형식씨(74·경남 김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로 합격 소감을 대신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김해 구본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45년간의 교단을 떠났다. 늦게 불법을 만나 지난해부터 부산불교교육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에 돌입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책을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애를 먹었습니다"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웃음에 담았다. 〈운〉



방송언론인불자 마곡사서 연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16, 17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방송언론인 불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KBS sbs BBS tbn 등 4개 방송사에서 종사하는 불자 방송언론인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불교미술의 이해'에 대한 이기선(전 동대박물관 연구관)씨의 강연과 화암스님의 불교예절 및 수행법 지도가 있었다.



청성부대 신병교육대 법당기공식

강원도 철원 청원사(주지법사 성관)는 지난 15일 청성부대내 신병교육대에서 법당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심원사 주지 영도스님, 청우사 주지 무공스님, 6사단장 남재준, 금강회장 서경섭씨를 비롯 군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병교육대 법당은 60여평에 현대식건물로 97년 완공 예정이다.

게시판

강좌 불교교리=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3개월 과정의 불교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월1일 개강하며 97년 2월까지 매주 일요일 조계사내 불교회관에서 강의를 실시한다. 지도법사는 前조계종포교원장 무진장스님. (02)732-1206~8

모집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불편한 노인 수발 및 말벗상대가 되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불교전문 편집인=민족사(대표 윤창화)는 12월 10일까지 경력2년 이상 PC와 MAC 편집이 가능한 편집인을 모집한다. (02)732-2403

행사 사찰전통음식 일일부페=대구자비의전화·노인상담전화와 불교사회복지회는 오는 12월 6일 귀빈식당에서 사회봉사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사찰전통음식 일일부페를 마련한다. 일일부페에서는 고급야채로 만든 탕수채, 두부김밥, 각종 전류 등 스님들이 직접 만드는 40여종의 전통사찰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053)951-3340

화촉 불교TV 박승범씨(마케팅부)가 오는 29일 낮12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소강당에서 송순희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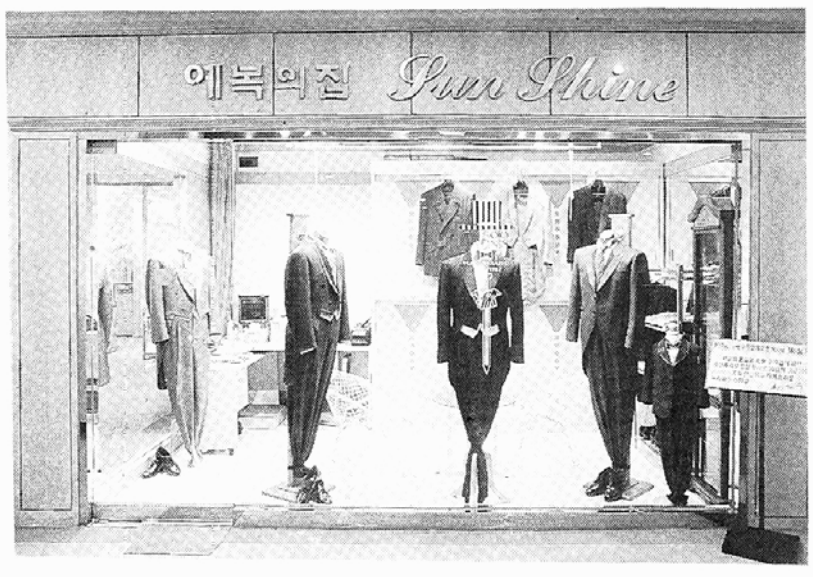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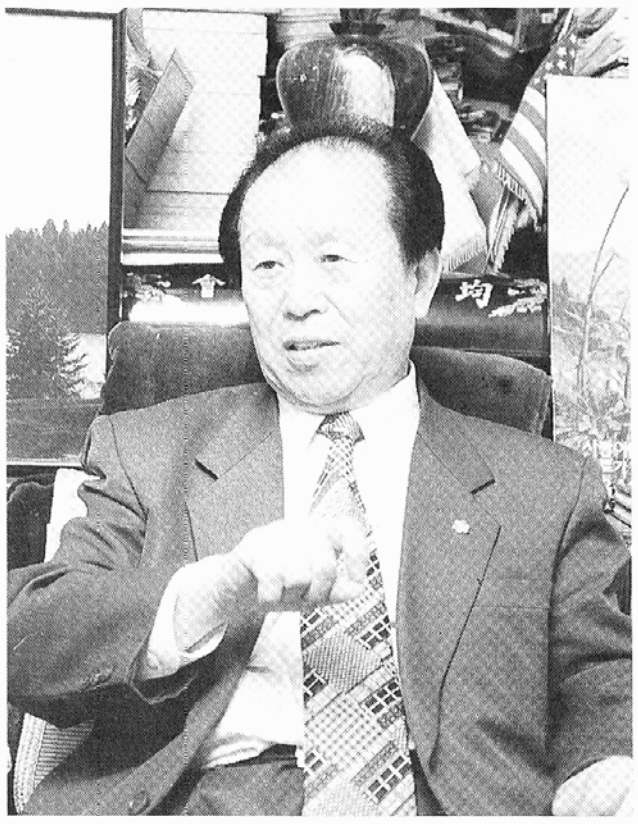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利他실현 의지 발명의 힘"

산문밖의 禪

한국발명학회 신석균 회장



"발명은 미래학입니다. 인류의 보다 나은 창조적 삶을 위하는 작업이지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의 은혜를 베푼것과 마찬가지르 말입니다."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발명가 신석균회장(한국발명학회 67세).

시인이나 화가와 같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발명가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아름답게 보다 효율적으로 더욱더 멋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 맥으로 통한다. 시인은 시 발명가이고 화가는 그림 발명가이다. 발명가는 발명으로 시를 쓰고 발명으로 그림도 그린다. 그야말로 회통(會通)이다.

신회장은 이러한 회통의 삶을 발명이라는 이름의 예술작업과 함께 해왔다.

학, 의학 등 15개 분야에서 3천7백여종에 이르는 발명을 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유의 1회용 종이팩, 자동응답전화기에 내장된 반복녹음테이프, 등산·낚시때 쓰는 태양열 라디오모자, 위조지폐감식기, 수면학습기, 태양전지, 바이오리듬 컴퓨터 등 그의 발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많은 발명으로 신회장은 세계발명대회에서 80여회에 걸쳐 대상, 금상 등의 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미국국제 에디슨상과 세계천재회의서 받은 네번의 상으로 그는 천재칭호를 받기도 했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회장은 "사람은 나이에 살지않고 정신에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취미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을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눈으

"행복찾는 수단이죠"… 수첩엔 아이디어로 가득
"인류는 발명 거듭하면서 다음 세대 향해 진보"
위폐 감식기·종이 우유팩 등 3700여종 '세상에'

그의 연구실 벽면을 꽉 채운 특허증과 실용신안증, 그리고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상장, 구석구석 발명가의 흔적을 보여주는 잡다한 발명품들과 수십년 발명세월의 손때가 묻은 빛바랜 서적들이 오직 발명과 함께 해온 그의 집념어린 삶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신회장은 그가 발명한 발명품의 권위로 인해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더 유명한 세계적인 발명가다.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그 어느것 하나도 발명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공존하는 속에서 인류의 삶은 발명의 발명을 거듭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진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인간의 삶 또한 각각의 개체가 모여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운 하나는 그 다음의 또다른 하나를 이끌어내고 서로 다다르면서도 하나가 된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자체가 발명의 연장선이다.

신회장은 지난 50여년간 그 각기 다른 삶의 형태인 전기, 전자, 식품, 과로 바라보고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애착은 집착과는 다른 겁니다. 애착은 바로 발명일 수 있지요."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듯이 신회장 역시 육신의 나이를 초월했다. 창조적인 사고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은 그를 늘 새로운 발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감로수와 같은 것이었다.

지난 90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 위조지폐 만능 감식기는 신씨의 발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회장이 이 위조지폐감식기를 착안하게 된 것은 지난 79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대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은행에서 달러를 바꾸는데 은행직원이 일일이 위폐여부를 대조하고 나서야 돈을 주더군요. 이들이 바꿔준 돈이 진짜인지를 우리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신회장은 이때부터 기존의 감식기를 수집, 이를 모조리 뜯어보고 그 성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소기의 부품덩어리라도 구해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전국의 고물상이란 고물상은 샅샅이 뒤졌다. 또 국제대회에 나갈때면 어김없이 그 나라의 중고부품시장을 순례, 구할 수 있는 데 까지 감식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와함께 각국의 화폐도 모으기 시작해 60개국의 화폐제작비밀을 푸는데 몰두했다. 지폐를 수집하기위해 신회장은 국내 은행 가운데 안 가본 은행이 없다.

온갖 실험으로 천신만고 끝에 화폐의 지질과 화학조성 및 제작암호를 푸는데 성공한 신회장은 연구시작 11년만인 90년 스위스 제네바대회에 이 위조지폐만능감식기를 출품, 마침내 금상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작은 생활의 한부분에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신회장의 모습은 어릴적 그림이 가득한 세계위인전에서 보던 그 에디슨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듯 하다.

놀랍게도 그는 지금도 하루에 한가지씩 발명을 해내고 있다. 그의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손바닥크기의 수첩을 보면 곧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깨알같은 글씨와 함께 복잡한 그림들이 그려져있는 이 수첩은 신회장이 사물을 접할 때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1일 1건주의'로 기록하는 발명일기다.

"하루 한건 발명이 제 원칙입니다. 발명일기를 채우지 못하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주일에 1건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정부에서 발간하는 하루 다섯권의 특허공보를 모두 읽는다. 그의 발명은 그것을 꼼꼼히 읽고, 생활곳곳에 널려 있는 발명의 아이디어들을 자기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발명에도 불구하고 신회장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 자신의 발명품을 자신이 직접 기업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명을 직접 기업화 시킨다면 그 한가지에만 국한되어 개인적인 연구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발명에 전념하는 발명가 신석균으로 남기위해서 돈버는 것은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석균회장.

오늘도 발명을 위해 연구실에 앉은 그가 발명한 최고의 작품은 다름아닌 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인간에 대한 자비심 그 자체가 아닐까.

이은자 기자

성불 못하면 계속 윤회하나요

문 세가지를 문의합니다.

① 윤회에 대하여: 전생의 선업이 금생의 선과로, 금생의 악업이 내생의 악과로 니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불교는 궁극적으로 윤회를 끊고 따라서 전생과 후생을 영원히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불못한 사람은 계속 윤회하는 것인지요.

② 연기법에 대하여: '生이 있기에 老死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生은 有가 있기에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이 어떤 인연으로 생긴 것인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해주십시오.

③ 천도에 대하여: 불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49재를 지냅니다. 죽은사람의 식이 그때까지 이 현세를 방황 또는 대기했다가 49일이 지나면 현세의 업을 因으로 하여 갈 곳으로 간다는 뜻인줄 압니다. 그런데 49재 이후도 천도재를 합니다. 이미 환생했을 영혼을 위한 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김보문·경기 안양시 호계동〉

우리가 육신을 지닌 한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혈을 빌어 몸뚱이를 만들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업식이 계합됨으로써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 곧 불성이요 진여요 본래면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참성품을 깨닫지 못하기에 업식을 나의 근본바탕이라고 생각해서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깨닫기를 강조하신 참 성품의 자리에서 보면 선과니 악과니 하는 것과 육도윤회라는 게 다 업식의 놀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는 없다 하겠는데 또 업식의 작용이 있으니 윤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의 정체를 깨달으신다면 본래로 물들지 않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참성품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윤회하느냐 않느냐의 의문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써 이것이 있다, 또는 그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근본도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답 세가지 질문이 다 같은 얘기이니 한 묶에 말씀드리지요.

지은대로 받고 뿌린대로 거두는 것은 철칙입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지요.

그런데 중생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밝아서 그대로 여여하니 더럽다 깨끗하다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불성의 자리에서 보면 너 나의 구별이 없이 평등하여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전체요 전체가 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따로 나다 너다 할 주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윤회의 주체인들 있겠습니까? 뭔가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과보를 받고 그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모든 상을 다 허망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색과 공을 둘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분들에게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일체를 놓아라' 할 때의 주인공은 내 주인공 네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전체 한 마음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주인공이 아닌 이름의 주인공이요 공(空)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악업 선업은 누가 짓고 악과 선과는 누가 받느냐고 할테지만 그것은 다 무명·집착이 낳는 업식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니 생이라는 시작이 있으므로 노사라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생도 그렇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니까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생을 낳게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무시이래로, 즉 시작을 말할 수 없는 무명이 시작되면서 유가 있고 생이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생이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궁극엔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으면 그대로 여여하고 물들지 않는 구경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자꾸 형상의 세계를 떠올리시는 모양인데 형상을 여의고 마음의 세계에서 자신의 근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참구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의 자신을 있게한 근본자리,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말기라 하는 것은 한 생각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를 따라가지 말고 본래 물들지 않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참 성품을 믿고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천도재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의 의식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해서 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49재는 꼭 49일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49일이면 누구나 과보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순간이 49일일 수 있습니다. 천도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의식의 문제를 떠나 영가의 마음을 보는데 달려 있습니다. 천도재나 49재를 형식으로 보면 한번했는데 왜 또하느냐 하겠지만 마음으로 보면 다르지요. 여러분 자신도 법문을 한 번 듣고 깨우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탄쌀은 밥맛이 다릅니다.

—. 활성탄 농법으로 생산된 쌀에는 농약과 제초제의 독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특이한 쌀입니다.

—. 옛날 햅쌀밥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소한 맛과 향의 미각을 통해 활성탄 쌀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는 생명으로의 농업, 생명으로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된 쌀의 양이 많치 않아 백화점과 미곡 상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매장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택배를 해드립니다.

—. 활성탄 쌀을 구입하시면 물 사랑 땅 사랑의 환경 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도 됩니다.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
전화 : 553-0089
558-0049
448-6562
512-6077

매일 읽고 쓰면 매일 쏙쏙 기억되는
每日漢文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길

주요내용 : 한자의 기본획과 변에서부터 옥편사용법.
한자의 역사, 한자 방정식
同子異音, 同子異訓등
단계적으로 쉽게 익힐수 있도록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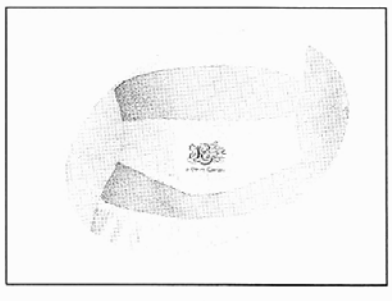
※ 一日一言 오늘의 강좌 생활인의 좌우명, 고사성서, 토막상식, 고전의 세계 등

국어사전속에 한자로 된 우리말이 70%

주문 : 교재대금 10,000을 입금시키면 즉시우송 안내 해드립니다.
국민은행 067-21-0710-091 안용식
상담전화 448-6562
한넋다비드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괴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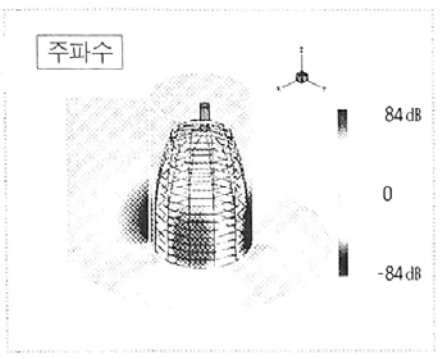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에밀레종 소리신비 돌기·울림통·맥놀이 '3중주'

성덕대왕신종 학술대회서 '神聲기법' 과학적 입증



◇ 에밀레종의 신비는 그림의 '짙은 색으로 표시된 두개의 음장영역(84dB)의 저주파수 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두개의 주파수가 하나의 소리처럼 들리는 맥놀이현상이 소리의 신비.

돌기 맑은소리 창출 울림통 지하영혼 위로
맥놀이 두 주파수 조화 멀리서 들을수 있게

천년의 소리를 지켜오고 있는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제29호)의 신비의 소리는 종 상단부 등의 돌기와 맨 윗부분의 대나무 모양의 음관, 땅 속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종각 밑 부분의 울림통, 몸통부분에서 나오는 맥놀이 현상 등에그 비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국립경주박물관·고촌재단·종근당 공동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성덕대왕신종 국제학술대회'는 최근 안전진단과, 훼손방지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이 전시실에 종각을 세워 특수강화유리관에 전시키로 하는 등 성덕대왕신종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진용욱교수(경희대 전자)는 성덕대왕신종 음향분석결과 36개의 연꽃형 돌기와 내면 상단부의 사발모양 돌기가 맑은 소리를 내는 주파수 특성을 띠게 해주는 요인이라 밝혔다. 또 신라의 동종이 그렇듯이 땅속 구덩이 모습의 움통구조는 지하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욱중생에게 극락세계 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적 교리를 공학적으로 실천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진교수는 성덕대왕신종의 맨 윗부분인 음관은 모든 주파수가 골고루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등 안정된 소리울림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하늘과 땅, 인간에게 고루 전파되도록 시스템 공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불교적 요소와 한국인의 전통사상을 음향공학적으로 오묘하게 곁들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양한 교수팀은 타종시 나타나는 '맥놀이' 현상(인접한 두 개의 주파수가 하나의 소리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소리신비의 비밀이라고 밝혀다. 김교수팀은 낮은 주파수의 음이 수십초동안 맥놀이를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돼 은은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상식교수(부산대)는 성덕대왕신종이 성덕·경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직계왕실의 조상을 추복하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산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방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는 성덕대왕신종은 석굴암이나 불국사가 그렇듯이 단순히 조상숭배와 정치적 배경만이 아닌 불교철학과 과학, 기술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망라된 대종합(大綜合)의 예술품임을 강조했다.

황수영박사(前 동국대 총장)는 종의 최정상에 한 마리의 용이 등에 커다란 원통(圓筒)을 짊어지고 고리 구실로 조형된 것은 만파식적(萬波息笛)설화에서 보듯이 호국용으로 신적(神笛)을 삼아 정재(頂載)케 한 신라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영배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종의 주조상태를 고찰한 결과 종신(鍾身) 주조시 형성된 이음매와 같은 선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주형(鑄形)은 상·중·하 3단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조법은 밀납형에 중량은 24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불교학 "세계·인류미래방향 제시해야"

권기종교수 '현대 한국불교의…' 서 주장

종교학 연구와 달리 진리성 추구
방법보다 인간·불성등 본질 접근



'지금까지의 불교학 연구는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방법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오류를 범해왔다. 미래 불교학 연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예상되는 인류사회의 제반 현실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일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현대 한국종교의 학문적 조명' 주제 학술회의에서의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의 불교학 연구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표면화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불교학 연구방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권교수는 '현대 한국불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라는 주제발표에서 불교사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했다. 불교사를 불교라는 협소한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는 태도와 불교사가 정치사의 한 영역인듯한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역사적 사실의 경우 당시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인물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측면이나 역기능적 사실을 은폐시키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 불교사상의 새로운 전개나 교단의 발전과 변화 등을 정치적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함으로써 불교 내적인 창의적 의지나 방향성을 소외시키는 등 불교사 이해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왔음도 지적했다.

권교수의 주장중 특기할 만한 것은 '불교학은 종교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학이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나 불교의 진리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즉 세계와 인간에 대해 미래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오돈수냐 돈오점수냐' '선이 우위냐 교가 우위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은 무엇인가, 불성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등의 불교의 궁극적 이상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한 불교학 연구의 과제라는 설명이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적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시기에 가능하고 필요한 불교적인 종교성 교육으로는 '선정의 명상'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는 지난 16일 일본 입정(立正)대학에서 열린 일본 불교교육학회 주최 제5회 학술대회에 참석, '초·중등학교와 불교적 종교성교육'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초 중등학생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에게 까지도 이같은 교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중고 불교교육
'선정 명상' 도입을

박선영교수 제시

발달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종교심리를 볼 때 유·소년기는 종교성의 맹아기(萌芽期)라고 전제한 박교수는 석조설법의 방법적 기본원리가 '수기설법'(隨機說法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듯이,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깊고 고른 호흡에 따라 차례로 숫자를 세게하거나, 연꽃이나 아름다운 미소등의 도상(圖像)을 머리에 그리게 하는 관법(觀法) 등의 비교적 손쉬운 접근방법을 통해 불교적 종교성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팔만대장경 제작 지식인 참여했다"

김윤곤교수 논문 발표



팔만대장경(국보 제 32호)은 하층계급인 각수(刻手)들에 의해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도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윤곤교수(영남대 국사학·사진)는 지난달 30, 31일 동아대에서 열린 동아대 개교 50주년 기념 '전통의 현재성에 관한 연구'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려대장경의 동아대본과 조성주체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당시 지식인이 대장경 제작에 참여했음을 공식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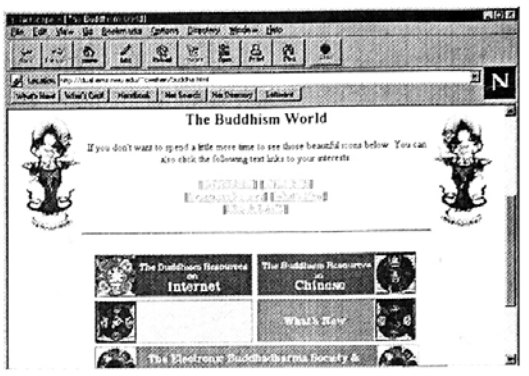
이같은 주장의 토대는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이 소장하고있는 〈금광명경(金光明經)〉과 대승대교왕경(大乘大敎王經)〉의 기록.

김윤곤교수는 위 두경에서 대장경의 관각활동에 당시 진사(進士)를 비롯한 문인지식층이 참가했다는 기록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광명경〉에는 1238~1239년 사이에 판각작업에 영수(永守)와 천균(天均)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영수'와 '천균'은 당시 충주의 향토기록에서 진사벼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각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온(溫)'과 '원인문(元仁文)'이라는 글자가 17장의 판본과 97장의 판본에 각각 나타나 있는데, 이같이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대장경 제작에 지식인이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당시 문인지식층은 몽고의 침입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실의에 빠진 민중에게 희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 경관사업에 참여했으며, '영수'와 '천균' 등은 바로 이같은 의식의 소유자요 문인지식층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의 대장도감과 남해, 강화의 분사(分司)대장도감에서 제작됐으며, 판각작업은 하층민인 각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세계

'불교세계'(The Buddhist World)는 인터넷을 통해 대만 불교계의 사회활동, 경전전산, 불교계 뉴스, 사찰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대만불교의 참모습을 알리는 사이트이다.

'불교세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대만불교·채식 요리법 등과 불교전산공덕회·불교자제공덕회·미국불교 등의 소식 등이다. 특히 이중에서 '공덕회'와 '불교자제기금회'가 가장 눈에 띄는 정보.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제공된 정보에는 대만불교계의 전산화 실태와 미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또 여기에서는 최근부터 불교전자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선사〉〈불교교리〉〈십우도〉 등이 전자출판되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자제기금회에서는 대만에 본부를 둔 자제공덕회가 전개하고 있는 병원·학교·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대만불교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불교재단으로 대만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번쯤 방문해 봄직하다.

이외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해 냉국수를 비롯해 9가지 채식에 관련된 요리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 대만불교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썬사이트(인터넷 D/B제공자), 호주국립대 등과 같은 웹서비스를 제공해주는 50여개 사이트와 20개 고퍼 사이트 그리고 세계불교계의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 주는 14개 사이트에 대해 링크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사이트 주소는 'http://dual.iems.nwu.edu/~cwshen/buddha.html'이다. 〈욱〉

전자서적 출판·대만불교 소개 눈길

열반경 AD 300~400년경 저술

신성현씨 역자·역출연대 등 통해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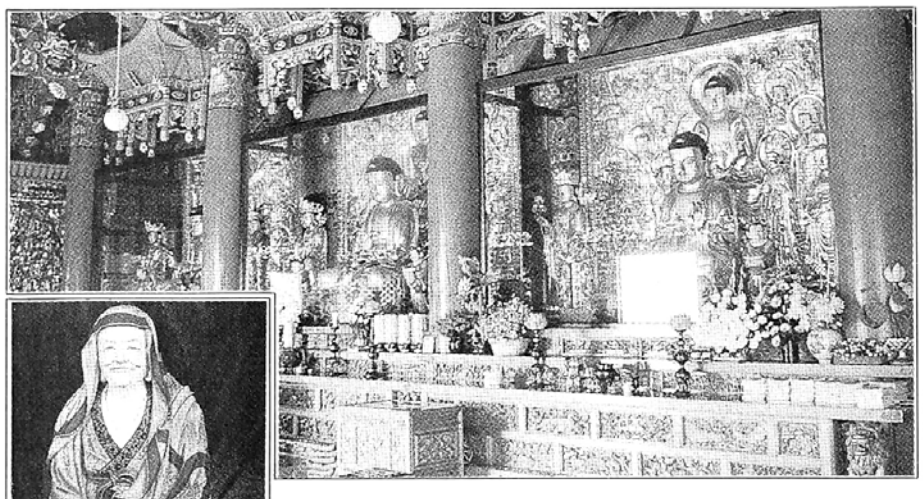
열반경의 성립 연대를 밝혀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반경이 대략 A.D. 300~400년경에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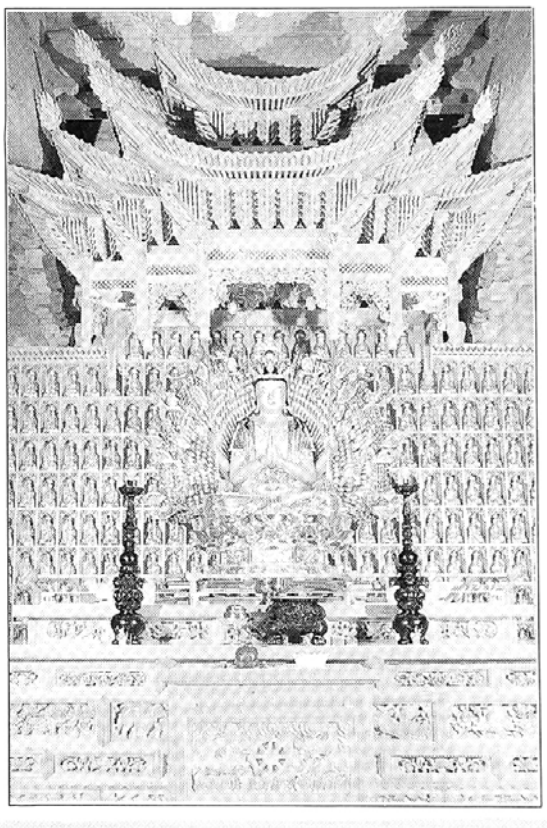
최근 발간된 〈한국불교학〉 제21집에 실린 신성현 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논문 '열반경 성립에 관한 제문제'는 열반경 성립연대를 네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추론하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신연구원은 중국 역자(譯者)와 역출연대(譯出年代)를 통한 방법이다. 중국 도량의 〈대열반경서〉와 〈출삼장기집〉 등의 전기에는 담무참(385~433)이 412년에 증국에 건너왔으며, 다무참의 경전가운데 〈대열반경〉은 현시(玄始) 10년(421)에 역출한 것이 확실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열반경〉 자체에 나타나 있는 '나의 반열반 700년후 여래의 교법은 여기에서 점차 멸하리라'는 구절에서의 700년이라는 시점이 〈열반경〉 성립시기리고 추정되고 있는 기원 4세기와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 〈열반경〉이 〈반야경〉〈수능엄경〉〈불잡화경(화엄경)〉 등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과 〈마하마야경〉〈대방등무상경〉 등의 다른 '대성열반경'군(群)과의 성립시기의 전후관계를 볼 때 이같은 추정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용수(龍樹 제2의 붓다라 불린 인도의 대사상가)의 저작에 〈열반경〉의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 깃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는 자비의 실천과 진리의 지각으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이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내용을 배우는데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참모습을 깨우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중생이 도달해야할 가장 큰 진리로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이웃의 손과 발이 되며 나아가 정신까지 포용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불교 실천가들을 소개한다. 이들이 펼치는 보살행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의 참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1〉

泰 술라크 시바라크사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인권·소비·교육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태국의 술라크 시바라크사.

빈민구제·정신교육 '30년 헌신'

참여불교망 구축 세계불교 연대 강화
서구식 소비주의 탈피 사회개혁 주도
인권운동 앞장 '정의로운 생애상' 수상
"자유는 개개인의 불성인식서 비롯"

"이 시대 불교는 사회학·심리학·인류학 등의 사회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원칙들을 열린마음으로 수용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상적 배경과 실천적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1994년 여름 미국 퀠리포니아에서 개최된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의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술라크 시바라크사(Sulak Sivaraksa·62)는 동시대 불교의 실천 방향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73년부터 30여년간 통렬한 사회·정치비판으로 반정부 학생운동에 불을 당겨 태국의 군사정권을 전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술라크 시바라크사. 그는 육순이 넘어선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태국의 사회개혁을 위해 도시·농촌 빈민구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육을 통해 서구식 소비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육정신운동 등 국내 사회개혁사업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를 결성해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세계참여불교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시바라크사는 이와같이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불교사회운동가로서 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93년과 94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지목되기도 했고 작년 12월에는 인권운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웨덴 의회로부터 제2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정의로운 생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Engaged Buddhism, 이하 'INEB')와 교육정신운동 (Spirit in Education Movement, 이하 'SEM')은 그가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적 대안과 실천적 방법론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INEB는 불교의 수행관을 통해 복지·평화 등과 같은 전인류의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1989년 태국과 일본을 비롯해 11개국 36명이 대회를 개최해 결성했다. 초창기 이 단체는 불자 개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고 타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INEB는 초창기의 활동에 비해 비폭력·인권·환경·여성 등과 같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체의 강화된 역량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세계불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작년 10월 태국 매홍손(Mae Hong Son)에서 개최된 INEB 연례대회에서 술라크 시바라크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각 단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속에서 사회참여불교운동을 면밀히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 마련"과 "UN의 자문기관으로서 INEB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INEB는 국제적 통신망인 인터넷에서 평화·인권·사회정의 등의 실현을 위해 조직된 평화네트워크(PeaceNet), 여성문제를 다루는 여성네트워크(WomensNet)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압력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바라크사는 또한 태국의 사회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정신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학교는 지식을 전수할 뿐 도덕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머리와 가슴의 조화가 결핍됐다"라며 태국의 교육 실정을 비판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개혁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1995년부터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SEM은 피교육자에게 생태학·생사(生死)·소비주의 등의 실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신적이며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운동재단. 현재 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험되고 있는 이 교육을 통해 시바라크사는 태국에 팽배해 있는 '서구식 소비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당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는 "태국에 만연해 있는 소비주의는 마치 '나는 구입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민의식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등식까지도 성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태국은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혜택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상류층에 국한돼 있고 중산층과 대부분의 빈곤층에는 아무 이익도 돌아가지 않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시바라크사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 필요 이상의 것을 갈구하게 만드는 '소비주의'를 일종의 신종 사교(邪敎)로까지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불교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보다는 공동체적인 사회 건설과 '탐욕'과 '소비주의'에서 벗어난 경제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불교적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바라크사는 인권과 비폭력운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쏟으며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이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 시바라크사는 "미국은 티베트인의 독립 열기를 높이 평가, 중국의 억압에 유감을 표시하곤 하지만 티베트인의 권리보다 對중국교역을 더 중시한다"(뉴스위크지 96년1월31일자)며 인권에 대한 서구의 위선적인 자세를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95년 7월 미국 퀠리포니아에서 인권운동가인 빈센트 하딩(마틴 루터 킹 재단 이사장, 美) 박사와 '사랑'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시바라크사는 "자유란 개개인의 불성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불성은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오종욱 기자

약 력

- 1933 방콕(태국)에서 출생. 영국에서 법학 수학.
- 1963~68 태국내 대학생회(Sapha Kafa) 주재. 태국 젊은이의 정신적 지도자로 부상.
- 1970 Visha Puja지 편집장 역임. 불교적 시각 통해 사회 비판.
- 1983 Pridi Banomyong 재단 설립.
- 1995 '정의로운 생애상' 수상

저서로는 사회참여불교(1988), 태국의 위기(1910), 평화의 씨앗(1992) 등이 있다.

나의 수행일기

유상종 〈대구전문대 교수〉



생도시절부터 전역까지 '나는 불자'

육사 초대 불교부장…軍·청년불교운동 앞장

6·25 동란의 와중인 1952년 9월 첫 일요일 아침,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전원은 영내 교회로 인솔되었다. '신입생 환영 예배' 참석을 위해서다. 바로 이것이 군에서의 불교 신앙활동의 시작이었다.

다음주 일요일에도 신입생은 동원되었다. 신입생이어서 나는 상급생 지시에 따르기는 했으나 '신앙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을뿐 아니라 고교시절부터 제주 관음사 포교당에서 불교학생 운동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복할 수가 없었다.

상급생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던 어느날 1학년 생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상급생이 "불교신자 손 들어!"라고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하면서 상급생을 쳐다보았다. "불교신자 없나?"라는 재촉에 "예,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섰다.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는 가운데 일곱명이 잇달아 일어섰다.

상급생은 "너희는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특혜령을 내렸다. 순간 좌중이 웅성대며 '나도 손들걸…' 하는 아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시의 군 편제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어 군내 불교활동은 물론 외출도 허락되지 않고 있었다.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외출이 처음으로 허락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 불연으로 맺어진 개척자 8명은 사관학교에서 가까운 진해 시내의 '묘법사'로 가 참배하고는 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우리는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주 일요법회마다 참석했다.

1954년 육사는 서울 태릉으로 옮겨갔다. 3학년으로 진학하였으나, 외박은 허락되지 않았다. 다만 외출시에는 '조계사'를 찾았다. 당시는 '태고사' 시절로 불교정화가 한창 때라서 대웅전 앞에는 연일 승려와 신도들의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일행을 만나주셨던 청담 총무원장스님의 자상한 배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6개월후 2학기가 되자 종교위원회 안에 불교부, 기독교부, 천주교부가 각각 구성되었다. 당시 생도대장 이용 장군의 용단과 YMCA 회장직을 맡고 있던 박세직 동기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초대 불교부장 생도로 임명된 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의 활동시간에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교실에서 법문을 청하였다.

그후 임관해서도 나는 군불교운동에 매진했다. 소대장 1년을 마친 중위시절, 육사 생도대 훈육관으로 동기생 5명이 선발되어 부임했다. 불교부 고문장교로서 지도를 맡아 써클활동의 내실화와 대신도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해·공군사관학교에 불교부를 창설하는데 일조함으로써 5·16 직후에는 3사관학교 체전이 끝나고 조계사에서 첫 합동법회를 열기도 했다. 호국불교의 맥을 이은 한 젊은 장교불자로서 화랑의 후예라는 사명감으로 포교활동에 몸을 던졌던 것은 참으로 내 생애에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4·19 이후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한불교청년회 재건을 위해 대각회 간부이던 이호식, 이건호법우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었고 약 13년간을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엮어냄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을 통해 오늘의 역경사업을 전개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동국대 박동기법우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구성할 수 있었다.

1971년 1군사령부에서 군불교장교회를 결성, 뒤이어 원주역 바로 앞에 군법당 법융사(法雄寺)를 건립하였다. 청담 종정스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친필 간판을 손수 달아주셨다. 군 영내 아닌 시내에 처음으로 법당이 건립된 이 불사는 종정스님의 마지막 공식행사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사관생도 시절부터 현역 복무 32년을 마치고 예비역에 이르기까지 전법 구도의 외길을 뛰어왔다. 나는 앞으로도 부처님곁을 떠나지 않고 청년의 마음으로 포교와 수행에 매진할 것이다.

전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보다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교중흥과 민족번영을 위해 매진해야겠다는 심정도 아직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엮음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값 7,500원

대한불교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㉒

用功到這地步 要具金剛眼睛 不再提
용공도저지보 요구금강안정 부재제
提就是頭上安頭
제취시두상안두
昔有僧問趙州老人道 一物不將來時如何
석유승문조주노인도 일물부장래시여하
州曰放下來 僧曰一物不將來放下箇甚麼
주왈방하래 승왈일물부장래방하개심마
州曰放不何挑記去 就是說這時節
주왈방불하도기거 취시설져시절

공부가 이런 경지에 다달으면 금강같은 눈동자를 갖춰야 하나니 다시 화두를 들고 비춰본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때에) 화두를 다시 든다면 이는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것과 같다.

예전에 어떤 중이 조주노인에게 한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조주스님 왈, 놓아버려라했다. 그 중이 다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습니까 하였다.

조주 왈 놓지 않으려거든 들고 가거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때의 시절소식이다.

此中風光 如人飮水 冷煖自知
차중풍광 여인음수 냉완자지

아방설조고화두
就是教爾時刻單單的的 一念回光
취시교이시시각각단단적적 일념회광
返照 這「不生不滅」
반조 저 불생불멸
(話頭)反聞聞自性 也是教爾 時時刻刻
화두 반문문자성 야시교이 시시각각
單單的的
단단적적
一念反聞聞自性
일념반문문자성
「回」就是反「不生不滅」就是自性
회 취시반 불생불멸 취시자성

어떤 이는 묻기를, '관세음보살의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째서 참선이 되겠는가' 한다.

이제 내가 '돌이켜 화두를 비춘다'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것은 그대에게 언제나 홀로 뚜렷하여 한 생각 돌이켜 비추는 게 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화두 반문문자성(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도 그대에게 언제나 홀로 뚜렷하여 한생각 돌이켜 듣는 자성을 듣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돌린다는 것은 곧 비춤이나 들음을 반대로 돌린다는 것이요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은 곧 자성을 이르는 것이다.

"화두를 비추고 돌이켜 자성 듣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게 아니다"

不是言說可能到
불시언설가능도
到這地步的人 自然明日
도저지보적인 자연명일
未到這地步的人 說也沒用
미도저지보적인 설야몰용
所謂 路逢劍客須呈劍 不是詩人不贈詩
소위 로봉검객수정검 불시시인불헌시

「聞」和「照」 雖順而時循聲逐色
문 화 조 수순류시순성축색
聽不越於聲 見不超於色 分別顯
청불월어성 견불초어색 분별현
然但逆流時反觀自性 不去循聲逐色
연단역류시반관자성 불거순성축색
則原是一精明 「聞」和「照」沒有兩樣
칙원시일정명 문 화 조 몰유양양

이 때의 경계는 마치 물을 마셔본 자만이 찬지 더운지를 아는 것과 같아서 말로써 이를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설명치 않아도 절로 명백할 것이요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이를 알러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모름지기 검을 내놓고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或問 觀世音普遍的 反聞聞自性 怎見
혹문 관세음보살적 반문문자성 즘견
得是參禪
득시참선
我方說照顧話頭

들음과 비춤이 흐름을 따를 때는(밖으로) 소리를 좇고 빛을 뒤따르게 되어 듣는 것이 소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보는게 형상을 초월하지 못해 분별이 뚜렷하다.

그러나 (안으로) 거스를 때는 돌이켜 자성을 관해 소리나 빛을 뒤좇지 않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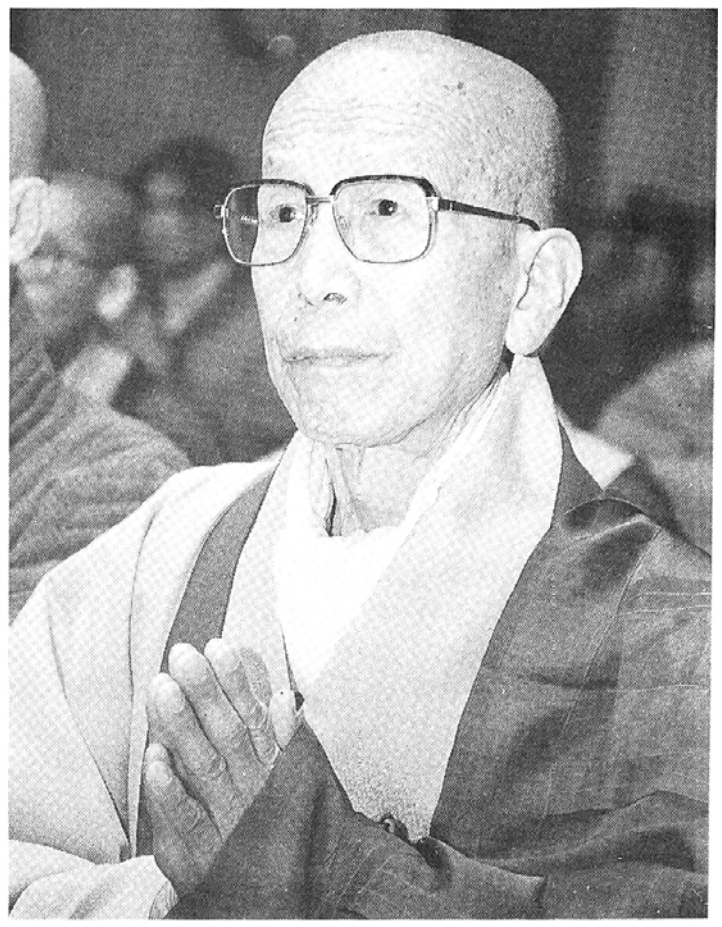
본래는 한가닥 밝은 비춤만 있어 들음과 비춰봄이 두 모습이 아닌 것이다.

龍 眼

지상법석 — '참사람결사 대법회' 서응스님 법어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인간주의 초월한 참사람주의는 현대문명 병근 치유하고 새 역사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백양사 고불총림 운문선원이 주최한 '참사람 결사 대법회'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불교방송 3층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사흘간 연인원 2천여명이 동참, '참사람결사문'을 채택하고 참사람의 삶을 서원한 이 법회에서는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이 상당법어를 했다. '참사람 결사문'과 〈임제록〉을 내용으로 한 서옹스님의 법어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註〉

오늘은 참사람 결사 대법회 날입니다. 사흘간 계속되는 이 법회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백양사에 있으면서 결제때마다 제방에서 찾아 오는 수좌들을 다 받아 들이지 못하고 돌려 보낸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간을 내어 여러 수좌들과 더불어 법회를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더니 이렇게 참사람 결사법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준비에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아 수좌 스님들이 많이 오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법문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법문은 동서고금 종교와 철학 중에서도 인간과 우주의 가장 높고 깊고 넓은 근원의 자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말하고 듣는 것도 아니고 신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심을 내어 정성껏 들으면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문명의 시대입니다. 과학은 인류에 많은 공적을 주었습니다. 많은 상품이 나와 인간을 편케 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인류가 한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문명이라는 하나의 차(車)에 동승한 것입니다. 과학문명이란 차를 타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종착역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이 가까와 질수록 위험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저마다 죽음이란 차표를 들고 한차를 타고 가는데 종착역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암흑의 굴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아니던 아름답고 평화스런 종착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종착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종착역, 과학문명이라는 기차가 멈추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오늘날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검증한다는 겁니까. 바로 선법문이 이런 인류의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심을 내어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명이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철학이 있게 마련인데 서양 과학문명도 그를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과학문명에 기초적 원리를 제공해 준 철학자는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기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심하는

서옹스님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약력

- 1912년 10월 生
- 32년 양정고등보통학교졸업
- 백양사서 만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졸업
- 41년 일본 임제대학졸업
- 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에 추대
-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선원 조실 역임
- 저서 〈선과 현대문명〉〈절대현재의 참사람〉〈임제록 연의〉 등.

"현대인은 과학문명이라는 바람에 휩쓸려가는 낙엽 입니다 잃어버린 주체성 회복의 길이 불교의 선법문에 있습니다"

자기, 즉 사유하는 자기는 인식 중에서 최초이면서 가장 확실한 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기를 데카르트는 정신 의식 이성 오성(悟性)으로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정신과 연장하는 물질만이 확실히 존재하는 실체라 인식했습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세계이성이 아니라 맹목적 의지'라 했습니다. 이 맹목적의지는 칸트가 말하는 이성적 의지가 아니라 생존하려는 욕망, 즉 자기생명을 후세에 존속시키려는 욕망이니 식욕이나 성욕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19세기말 포이에르 바하는 플라톤에서 헤겔까지의 이성철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 원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서 니체가, 포이에르 바하에서 마르크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인간의 주요한 욕망이라고 했으며 니체는 그 욕망의 본질을 권력욕이라 봤습니다. 그 뒤에 프로이드는 기본적 욕망은 성욕이라 했습니다. 현대는 이처럼 쇼펜하우어와 포이에르 바하에서 시작된 욕망철학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문명은 이성적 인간에서 욕망적 인간으로 전락하여 야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시 야수적인 본능생활로 복귀한다면 야만적인 투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비극적 종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병근을 치유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주의를 초월한 참사람주의입니다.

오늘의 법회는 참사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그 실천의 마음을 벼르는 자리인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욕망을 초월한 자유자재의 근본 자리, 영원불변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자기화 시키는 진리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는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욕망의 세계는 멸망의 종착역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관이 없는 과학문명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인류는 더이상 문명의 노예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파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과학문명으로 인해 사람은 잘 살게 됐지만 사는 모습은 복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저마다 그 복잡함에 끄달려 정신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모습도 기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라는 인식도 없고 자기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려는 의심조차도 없습니다.

떠도는 어린넋들을 위한
태아령 천도 백일기도 안내

태안지장(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태아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태아영가의 천도를 위한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함입니다.

범종각 복원불사와 태아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1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2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3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태아령 천도공양법)
4 염불신앙의 길잡이(정토신행집)
5 백일기도 자료집(부처님께 가는 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199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입재) ~1997년 2월 22일(회향)
▶ 동참회비 : 기도금(5만원) 영가 위패 1인당 (5천원)
▶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 화 : (0694)52-1755 · 팩스(0694)53-0009



1박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불자의 정토신앙과 임종공부를 위해 "죽기 위한 가르침"이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2일의 단기수련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업을 맑히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대원사 주말 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일요일 2시
(10명 이상 단체 환영)
▷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향공(香功)등
▷ 수련지도 : 현장스님
▷ 회비없음
▷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사평종점)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지상법석 – '참사람결사 대법회' 서응스님 법어

멸망의 종착역 향한 기차"



◇ '참사람 결사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서옹스님의 법어에 귀 기울이고 있다.

'참사람결사' 세가지 서원

첫 째 무상무주(無相無住)의 참 나를 깨달아 자비생활을 합시다.

둘 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역사를 창조합시다.

셋 째 자기와 인류와 생물과 우주가 영원의 유일생명체이면서 각각 별개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집착함이 없이 진실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세계를 건설합시다.

"자기 참모습 보려는 의심 문명 굴레 벗어나는 지혜"

"어두운데서 등불 만나고 가난 속 보배 얻음이다"

가을이 깊어 휙 불어 닥치는 바람에 낙엽이 아무 저항없이 휩쓸려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 과학문명이라는 바람에 휩쓸려 가는 낙엽입니다. 자기라는 주체성을 잃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불교이며 그 핵이 바로 선법문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량한 그래서 자유자재한 나의 참 모습을 자각하는 도리가 선의 가르침입니다.

현대 문명의 불합리와 그로인해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참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 법회가 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이즘에서 〈임제록〉의 가르침을 몇구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이 법문은 지식과도 상관이 없고 나이나 지위와도 상관이 없으니 오직 지극한 신심을 내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시운시방(垂示云十方)을 좌단(坐斷)하여 천안(千眼)이 돈개(頓開)하고 일구절류(一句截流)하여 만기침삭(萬機寢削)이라 환유등사동생저마(還有同死同生底麼)아 견성공안(見成公案)을 타첩불하(打疊不下)인댄 고인갈등(古人葛藤)을 시청거간(試請擧看)하라.

〈임제록〉에도 있지만 〈벽암록〉에도 있는 구절입니다. 〈벽암록〉의 저자인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가 임제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수시해 이르되 시방을 앉은 채로 끊어서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시방을 앉은채로 끊는다는 것, 그리고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린다는 것은 말로는 하기 쉬운 것이지만 그 경지란 한없이 깊은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신(神)도 돌파한다"는 말을해 교단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만 이 경지란 참으로 도달하지 아니하고 문자와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겁니다. 말에 팔리고 이끌리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참선의 현묘한 경지에 이르면 시방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확철대오(廓徹大悟)해져서 천안이 단박에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로 모든 작용을 끊어서 만가지 기틀을 쉬어 없애는 겁니다.

그러함에 도리어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이 있어 현실의 공안을 처단하지 못할진데는 옛 사람의 법문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거정상좌문임제(擧定上座問臨濟)하되 여하시불법대의(如何是佛法大意)닛고 '다소인도차방연(多少人到此茫然)이라' '유유저개재(猶有這箇在)라' '아랑당작시마(訝郎當作什麼)오'

제하선상금주(濟下禪床擒住)하여 여일장(與一掌)하고 편탁개(便托開)하니 '금일적패(今日捉敗)라' '노파심절(老婆心切)이라' '천하납승조불출(天下衲僧跳不出)이로다'

정저립(定佇立)이어늘 '기락귀굴리(己落鬼窟裏)라' '차과료야(蹉過了也)라' '미면실각비공(未免失却鼻孔)이로다'

방승(傍僧)이 운정상좌하불예배(云定上座何不禮拜)오 '냉지리(冷地裏)에 유인저과(有人沮破)라' '전득타력(全得他力)이라' '동가인(東家人)이 사(死)에 서가인(西家人)이 조애(助哀)로다'

정(定)이 방예배(方禮拜)라가 '장근보졸(將謹補拙)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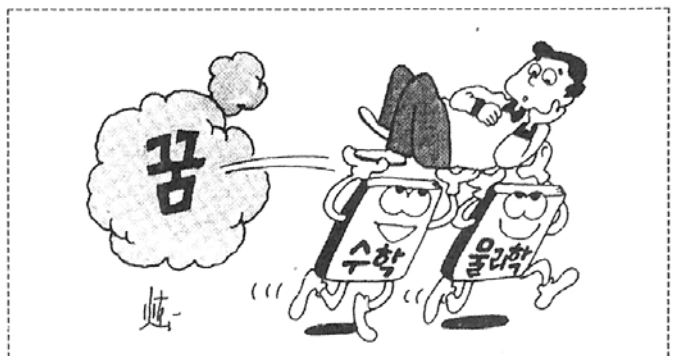
홀연대오(忽然大悟)하다 '여암득등(如暗得燈)하고 여빈득보(如貧得寶)라' '장착취착(將錯就錯)이로다' '차도정상좌견개시마(且道定上座見箇什麼)완대 편예배(便禮拜)오.

문장이 좀 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새겨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상좌(定上座)는 임제스님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선승입니다. 그가 임제 스승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극근선사가 착어를 달아 설명한 것(' '부분)입니다. 이 물음에 극근선사가 착어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아득해 하다' '동가인이 사에 서가인이 조애로다'로 착어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지 않고 스승의 도움으로 보게될 깨달음의 세계로 옆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상좌가 예배를 하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 장면도 부지런함을 가지고 옹졸함을 이겼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상좌가 크게 깨달음을 얻는 장면에 대해 극근 선사는 캄캄한데서 등불을 얻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두운 곳의 등불뿐이겠으며 가난 속의 보배일 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 자성을 증득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기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과학문명의 폐단이 인간의 정신을 갉아 먹는 이 시대에 어둠 속에서 등을 밝혀 드는 지혜를 얻기위해 우리는 한 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수행정진 해야 합니다. 과학문명 그 자체는 나쁠것이 없으나 그것은 생명관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흠입니다. 그래서 활발발(活發發)히 살아있는 절대 현재의 참사람이 되어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한 참사람의 세상을 위해 세가지 서원을 하여 실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4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1)

이해와 믿음

"주·객으로 나누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매개없이 빛보다 빠르게 이심전심"

'…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라고 설한 후 경전은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라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설한다.

'공'중에는 '지혜'라 할 것도 없고 '얻는다'는 것도 없으며 얻은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집착하는 마음에 '아'를 만들고 '아'를 만들자 모든 것이 주와 객으로 나뉘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집착이 만든 꿈이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심지어 '아'마저 분열되어 있다. 두뇌의 한쪽에서는 이것을 행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두뇌의 다른 쪽에서는 저것을 행하려고 작정한다. 이렇게 해서 보통사람들은 갈등속에 괴로와 한다. 반면에 '조견오온개공'을 한 사람 즉 견성을 한사람에게는 즉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꿈을 깨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체득하니 지혜라 이름붙일 것도 없다. 저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저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따져 얻을 것이 있겠는가? 저것과 내가 남일 때 따지고 얻을 것이 있는 것이지 그대로 하나인데 무엇을 얻겠는가? 그저 꿈을 깨면 그만인 것이다. 그래서 꿈을 깬 보살은 반야에 의해 걸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 즉 대아(大我)인 것이다.

수학과 물리학의 재미있는 점은 이 두 학문 모두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데에 있다.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인식의 한계 즉 인식의 불확실성을,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가 이성의 불완전성을 밝히므로써 사람이 알음알이 지식으로 본 것이 사실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므로써, 수학과 물리학은 반야심경의 내용중 절반을 지지하고 있다. '오온개공'으로부터 '…이무소득고'까지를 수학과 물리학이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반야바라밀다…'부터는 수학과 물리학으로 따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얘기다.

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없이 '…의 반 야 바 라 밀 다…'는 허망한 얘기이다.

수학과 물리학은 철저하게 분별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이기에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반야지를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대표적인 예로 '텔레파시' 또는 '이심전심'을 들 수 있다.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생각하는 바를 전한다는 뜻인데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없이도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주·객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만 본다면 '이심전심'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도 없다. 그러나 주·객으로 나뉘어지기에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반야지를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대표적인 예로 '텔레파시' 또는 '이심전심'을 들 수 있다.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생각하는 바를 전한다는 뜻인데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없이도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주·객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만 본다면 '이심전심'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도 없다. 그러나 주·객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의 세계라면 정보전달이 반드시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전달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미 설명한대로(15회) EPR의 패러독스는 이 정보전달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아인슈타인처럼 세상을 주와 객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심전심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아처럼 세상을 하나로 보고 설명한다면 이심전심은 물리학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너와 내가 그대로 하나인데 거기에 무슨 매개체가 필요하고 정보전달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실험결과는 보아가 옳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아'에 집착되어 있는 보통사람들은 '공'으로 합일된 경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맹신과는 다르다.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얻은 수학과 물리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기에 이 믿음은 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경전의 후반을 읽기로 하자.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 수 대 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 이내 선착순
◆출 발 일 : 1996년 12월22일 (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불교달력

"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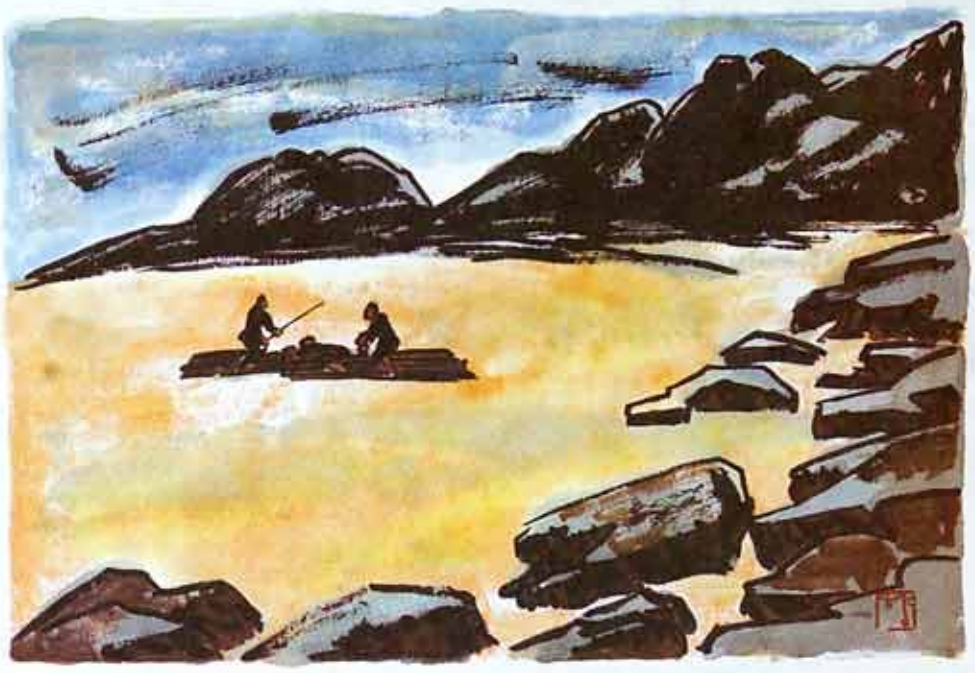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 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고은 불교대하소설



103



"저것봐, 저건 상수의 떼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지… 이 바다 어디에 보타락가섬이 떠 있단 말인가"

박월 길성 순풍이의 행방

파도를 이기지 못해 떼배가 해체되었다… 길성은 자취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까지 서해 연안의 육지와 무욕도 사이를 건너는 떼배는 두 겹으로 된 참나무와 소나무로 된 것이었다.

무욕도 일대의 바다는 매우 빠르고 거친 물살 때문에 작은 배보다 차라리 떼배의 경면이 안전하였다. 인담이 그런 떼배를 엮어서 타고 다닌 이래 그것은 무욕도의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안면도나 서산 일대의 질이 좋은 나무들은 한양의 궁궐에서 황장목(黃腸木)으로 지정해서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금기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밖의 산에서 배를 만들만한 재목을 구하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기저기에서 관가의 토색질과 굶주림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살아온 곳을 떠나 거지로 떠돌다가 서로 뜻을 맞춰 초적이 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들 초적은 바닷가 포구의 배라고 그냥 두지 않고 연안을 떠돌며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배 한 척의 값은 두 콕까리 벙선이 큰 마을 1백호의 집값을 다 합해도 비쌌다.

이런 때여서 나라의 수군(水軍)에도 전선(戰船)이나 순시선 따위도 모자라 세곡선(稅穀船)을 일정한 기간 징발해 쓰는 처지가 되었다.

무욕도의 떼배는 이런 시절의 지혜로 생겨난 셈이었다.

하지만 떼배가 떠날 때는 반드시 날씨나 바다 조류의 사정을 알아보아야 하였다. 그럴 뿐 아니라 인담처럼 떼배를 저어가는 요령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었다.

가령 대해 같은 사람은 위낙 바다 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떼 타기에도 바로 익숙해졌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으로도 무욕도의 수행은 바깥세상과 철저히 격리될 수 있었고 그들만의 폐한된 세상에 갇혀서 사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자난날 붙이는 함무더러 섬에서만 사는 단조로움 때문에 "아무데도 담을 쌓을 데가 없지만 이 도량은 천길의 담이 쌓인 감옥과 다를 바 없소"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가 지은 '절해고도'라는 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바다라고 묘사하면서 그 자신은 그런 감옥에 갇힌 무기수라고 묘사한 것도 섬에서의 삶에 쉽사리 어디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시절은 백성들이 타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 못지 않게 산중이나 변방으로 소외된 승니(僧尼)들까지도 여기저기 따돌아야 하는 것이었다. 절의 재산까지도 탐학의 대상이어서 어쩌다가 큰 재가 들어온 다음날은 어김없이 그 고을 아전 붙이가 나타나 재를 지낸 뒤의 곡식과 엽전꾸러미를 싹 쓸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형편인지라 염불도 제자 거리와 마을을 떠돌며 탁발하는 일로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일부 승려들은 죄를 내어 점을 쳐주는 일도 생겨났다.

무욕도의 사람들이 그런대로 이같은 바깥세상의 고초와 달리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간 다행한 노릇이 아니었다.

남쪽에서 몰려가는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끊질 속력을 내고 있었다.

어린 행자 우식과 만우등은 그들의 떼배가 한 점으로 보이다가 이윽고 그 점도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선착장 위의 촛대바위 위에 올라가서 오래오래 쳐다보고 있었다.

만우가 말하였다.

"나도 떠나고 싶어."

"무슨 소리야?"

"공부라는 것은 한 군데 처박히면 안될 것 같아."

"너 무슨 소리야?"

"저렇게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나와 세상을 위해서 이로운 것이 될 것이야."

"떠나고 싶거든 너나 혼자 떠나거라. 내가 네 헛된 소리를 일러바치지는 않겠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듯이 친구를 꾸짖는 우식이도 그가 떠나온 집생각이 날 때도 있고 섬의 파도소리가 지겨울 때도 없지 않았다.

박월 길성 순풍이의 떼배는 충청도 연안을 잘 건너갔다. 경기도 남부연안의 크고 작은 섬들로부터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었다.

그런 섬은 으레 바다 위를 주름잡는 도적들의 소굴이기 십상이거나 도적을 소탕하기 위한 관군이 상륙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오직 대성강포구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곳들이었다.

그들의 떼배가 동쪽으로 덕적도 대부도를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의 뒤에서는 시꺼먼 구름이 거센 바람을 몰고 쫓아오고 있었다.

박월의 몸에 갑자기 오싹 한기가 들었다.

"좀다… 날씨가 왜 이런가" 하고 한번 진저리를 치다가 뒤를 돌아다본즉 하늘과 바다가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길성이 순풍이한테 삿대를 맡겼다.

"이제 네가 잘 살펴라… 나는 한잠 자야겠다."

그러자 박월이 버럭 화를 냈다.

"야 뒤를 봐라. 코를 골게 생겼는가…."

길성이 받아넘겼다.

"이 바다 용왕님께서 언제 뱃놈들을 편하게 해주신 적이 있었던가. 벌 것이 아니야."

하지만 파도가 떼배 위로 사납게 덮칠 만큼 사나워지고 있었다.

박월이 연방 "좀다! 좀다!"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움추렸다. 박월뿐 아니라 순풍이도 벌써 물바락을 맞은 하반신이 젖어서 으슬으슬해지는 것이었다.

바다는 차츰 그 동작이 활발해졌다.

벌써 파도 고랑이 석자나 파이며 파도 갈자락은 예리한 모서리가 치솟아 산신히 부서지고 있었다.

떼배도 그런 파도에 떠올려지다가 파도에 파묻히다가 하였다. 단단히 뭍들어맨 물독과 생식용의 쌀을 담은 옹기를 길성이가 마치 그것과 한몸이라도 되는 것처럼 붙잡고 있었다.

진작 물독에는 파도의 일부가 스며들어 갔다.

세사람은 뱃속이 허전하였다. 그런데도 파도 때문에 쌀 옹기의 부경을 열 수 없었고 물독도 열 수 없었다.

"남해안길."

"용왕님께서 곧 진정시키실 것이야."

"도무지 이렇게 시장해서야…" 라고 길성과 순풍이 주고받는 말에 박월이 화를 냈다.

"입 닥쳐…."

바다는 파도만이 사나워진 것이 아니었다. 하늘도 바다 못지 않게 비바람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채 그런 갑작스러운 비바람 속에 파묻히게 된 그들의 떼배는 떼배 위의 작은 움막 속에서 밧줄을 꺼내어 각자의 몸을 떼어 떼어 고정시켜야 하였다.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되었고 흡백 짖은채 내달려오는 파도 아가리 하나하나에 맞서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다행히 세사람 중의 누구도 그런 시간을 잘 견디어냈다.

"저것 봐" 라고 순풍이가 오래만에 입을 열었다.

다른 두 사람도 순풍이가 턱으로 가리킨 쪽으로 이번에는 또 무엇이냐는듯이 겁먹은 채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들의 위치에서 서남쪽에 해당하는 저쪽에 작은 떼배 하나가 파도 위에서 장난치듯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었다.

"저건 상수의 떼가 아닌가?" 라고 박월이 눈을 크게 뜨고 말하였다.

그때였다. 그들의 떼배가 파도 덩어리속에 파묻혀버린 것이다.

다시 파도 위에 나온 그들은 더이상 저쪽의 작은 떼배를 눈여겨볼 수 없었는데도 어느새 파도의 힘에 의해 그 작은 떼배는 그들의 떼배 바로 옆에 다가와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상수의 떼배였다. 아직 상수의 시체를 고정시킨 그대로였으나 시체를 쌓은 무명천 따위는 너덜너덜 구멍이 나 있었고 그런 부분의 단전(丹田)쪽이나 턱 언저리는 고기에 뜯어먹혀서 처참한 상태였다.

"길…성이…길…성…이…" 라고 박월이 울음을 터뜨리며 불렀으나 길성은 벌써 그 자취를 보여주지 않았다.

박월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옆에서 파도에 춤추는 상수의 떼배쪽을 쳐다보았다. 상수의 시체가 아예 뜯어져서 자취를 감춰버린 빈 떼배로 되어있었다.

박월과 순풍이가 함께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들이 탄 떼배의 나무를 엮은 부분이 파도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려나가자 떼배 자체가 해체되었다.

두 사람도 파도 위에 솟았다가 파도속으로 파묻혔다. 해엄치는 일 따위는 아무런 효모가 없었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아예 두 눈알 따위도 파먹었는지 움푹 파여 있었다.

길성이 눈을 지긋이 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그렇지… 이 바다 어디에 보타락가섬이 떠있단 말인가… 이 바다 어디에 관세음보살이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억센 비바람속에서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을 따름 아닌가…."

그런 길성이를 달겨든 파도가 때려 쓰러뜨렸다. 그는 쓰러지면서 허리 부분을 때 바닥에 맨 밧줄이 끌렸다. 그는 떼의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엮어맨 칡넝쿨에 그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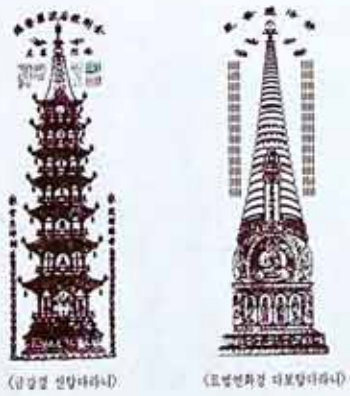
하지만 더이상 파도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가 떼배 위에서 밀려나가 파도와 함께 저쪽으로 떠내려갔다.

그림 · 조 향 숙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보협인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63㎝ × (세로)1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지가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악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안면을 댔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상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한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오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무비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도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다른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포항과 제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절차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시고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전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용도 : 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법당의 필수품

특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 입니다.

· DX - 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마이크 입니다.

· DX - 707
분리형 스텐드 마이크
•공급가 : 180,000원



· TM -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영등포전시판매장
영등포유통상가 지하1층 다열 18, 19호
☎ (02)671-9356~7

유 코 전 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 (02)697-9976, 605-3235 FAX : (02)695-9676

독 자

독자 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 · 제안 ·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나우누리 : sutta
부디피아 인터넷 : gobaoou@buddhapia.co.kr

저녁에도 법당 개방 예불할 수 있었으면

얼마전 저녁 9시경 기도를 하기위해 인근 절을 찾았으나 대웅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혹시나 하고 법당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찬가지로 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 이로인해 법당밖에서 부처님께 예만 올리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겪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퇴근후 저녁시간을 이용, 이곳 법당을 참배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이와같은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법당은 모든 불자들의 안식처요, 고민과 기쁨을 맘껏 털어놓을 수 있는 불자들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숙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불교음악 복원 노력 민족문화 되찾는 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문화, 전통음악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서양은 종교음악(교회음악)이 발달되어 바하, 모짜르트,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하였고 고급음악인 종교음악이 대중음악을 선도하였다. 비기독교인들도 클레식을 듣는 사람들은 종교음악을 필히 듣게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이후 종교음악(불교음악)이 퇴보하고 궁중음악, 제례음악등이 고급음악으로 대체되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국악을 더 높은 차원의 종교음악, 예술음악으로 상승 발전할 수 없게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국악을 살리는 길은 종교음악(불교음악)을 복원, 재창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민족문화를 되찾는 일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중의 한부분이 될 수도 있다. 영산회상같은 것도 없어진 불보살을 찬탄하는 가사를 다시 복원하여 가다듬는다면 적어도 수 많은 불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음악의 선율, 음향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불자들은 가사만 들어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판을치는 이 시대에 훌륭한 종교음악회는 불자들의 문화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발전은 종교음악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종교음악의 발전은 예술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종찬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불교청년회에 가입 신행도반 갖고싶어

저는 군복무중 병에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여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돼 나름대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주나 손목에 걸고 다닐뿐 특별한 신행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병원의 군법당인 '자광사'에서 현대불교신문을 접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바로 '대한불교청년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무엇보다 신행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반이 그립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청년회에 가입,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서정일 · 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

불교 왜곡 내용담은 'X-경' 불매운동 벌여야

서점에서 이상한 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 복장을 하고 머리를 짧게 깎은 자자의 모습을 담은 책표지와 섹스를 연상케하는 〈X경〉이란 책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책내용을 훑어보았더니 포르노소설을 방불케 하는 저나라한 성적 묘사와 곳곳에 갖다붙인 불교적인 소재와 용어가 혀를 찰 지경이었다.

한때 술가에 불교물을 먹었다는 저자 박현몽이 부처님 은혜를 입고도 이토록 상업성에 물든 저질 연애소설을 쓰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출판사(문학수첩)가 일부러 책표지에 머리깎은 스님복장의 저자를 내세우고 제목까지 '섹스경'이란 의미를 사용한 것은 악덕 상혼을 보여주는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단도 문제다. 한때 승적을 가졌다 파계한 사람이 불교를 왜곡하는 책을 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정락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故 이기영선생을 추모하며

誰說死生同　누가 사생을 같다고 말했던가
幽明隔萬重　저승과 이승은 겹겹히 막힌 것을
追查已彼岸　뗏목은 벌써 피안에 닿았으니
雲渡寒潭空　구름 지나간 뒤의 연못이어라

음신(音信)이 끊어진 시골에 있다가 11월 11일 상경해서야 선생께서 급거하셨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조교 박재술군을 시켜서 빈소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벌써 장례식이 끝났다는군요. 학술발표로 만나 술잔을 나눈 것이 엊마 전이었고, 저의 퇴임을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자주 만나자"고도 하시더니, 선생은 약속만 남겨둔 채 먼저 가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세의 꿈결인가요!

1996년 11월 11일 밤
후학 中天 金忠烈 누만(淚輓)
〈고려대 교수 · 철학과〉

현대불교를 읽고

심층보도 기사 · 지방소식 지면확대를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이세상이 은통 불법으로 충만한듯해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지면의 기사들에서 기자들의 분주함과 고뇌가 엿보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대불교의 학술기사는 다른 불교계 신문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다. 또 매번 교계의 현안문제를 짚어보는 열린 마당 역시 불교의 미래를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거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곳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빠듯한 지면에 너무 많은 기사를 넣으려 하다보니 심층적인 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교계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은 좀더 자세한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기사 역시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만 불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윤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특별 기고

가우디의 건축정신

지난 10월 22~31일 서울 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장에서 열린 '가우디展'을 보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 본 기억이 생생했다. 불세출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는 탁월한 예술성으로 건축예술의 새 경지를 구축했다는 평을 듣는 불세출의 건축가다. 그는 평생을 수도자처럼 경건하고 고결하게 살면서 불후의 건축물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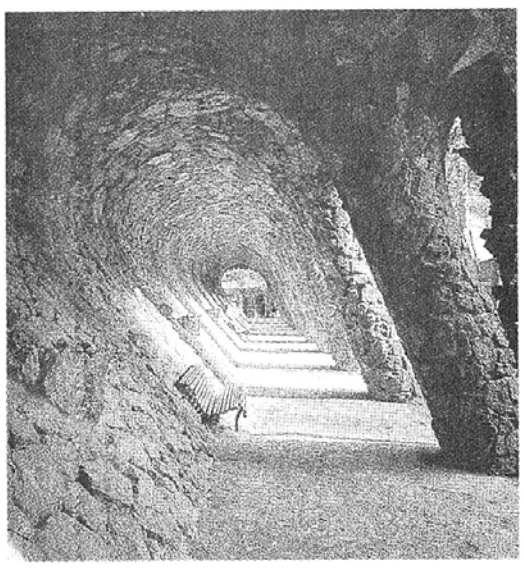
평소 가우디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나의 위대한 건축서적이다"고. 그는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서 설계했다. 그렇기에 벌레 풀 꽃 나무 동물들과 자연동굴 절벽의 단면모습이 모두 건축의 모델이 되었다. 가우디의 걸작중의 걸작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공원'과 '성가족성당'이다.

구엘공원은 미완성 미래마을로 남아있다. 로마고딕 기법을 혼합하고 아르누보 양식을 도입한 성가족성당의 축조는 1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3분의 1 쯤밖에 건설안돼 앞으로 200년 이상이 더 지나야 완공될 수 있다고 한다. 기껏해야 100년을 못사는 인생이 집건축 하나에도 300년이 더 걸리는 걸로 택했다는 그 느긋한 신중함과 여유에서 깨우침을 얻는다. 제멋대로 생긴 잡석의 모양대로 뒷쪽 기둥과 벽을 쌓은 구엘공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소다. 구엘공원과 구엘저택 밀라저택 등 가우디의 작품 3점은 지난 84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인의 문화재가 되었다.

성가족성당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만기설법(萬機說法)의 탑이듯 만기설교(萬機說敎)의 건물이다. 성경책이나 설교는 그 때마다 성경을 읽는 이 설교를 듣는 이에게만 한정되지만 성가족성당은 항상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빼어난 예술건축작품을 보면서 조급하게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건축불사에도 가우디의 건축정신을 꼭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지 묵 〈송광사 스님〉



◇반사된 밝은 햇빛의 조명을 고려한 구엘공원 뒤켠 돌담벽. 가우디의 작품으로 지난 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부처의 장 *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 향 원



2천만의 깨달음을

나를 바로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제주지사 · 전화 064-55-9800
사천지국 · 전화 0593-32-5160
강릉지국 · 전화 0391-647-9317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부적이란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 운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 부자가 되는 비결부
▲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 삼재소멸 비결부
▲ 칼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 화 · 재앙을 피하는 법과 물태풍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살아있는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 박지명 지음 값 8 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형스님 지음 값 7 000원
계림의 숲 전화 : (02)444-3575, 5310 팩스 : (02)3436-1064
종로서적 전화 : (02)732-5381 팩스 : (02)732-6202

스스로 쉽게 배우는
척추건강법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전문의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술한 책과 비디오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과 마음(?)활용"
1 척추를 바로잡아
2 신경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3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 흘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합니다.
▣ 가격 - 책과 비디오 테이프 : 7만원
국민은행 043-21-0418-782(김성수)
입금후 우편발송
문의 : (02) 525-2801,817-9374
서울시 동작구 본동 50-5
도서출판 하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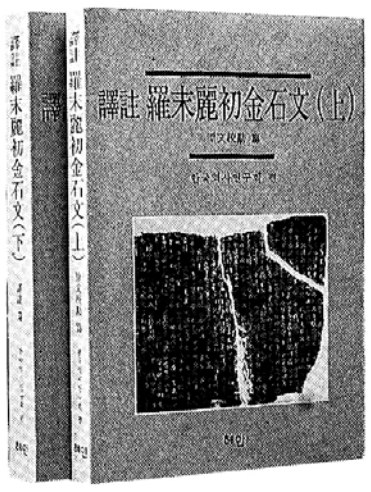
비디오 부모은중경
온가족이 함께 보는 영상경전
부모은중경은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설 하신
경입니다.
이제 보고/듣고/따라 하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비디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편의 비디오가 불자의 가정을 비롯해
사찰/ 교도소/군법당/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상영되어
자애와 효친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구현되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소비자가격₩20,000
포교/선물/법보시용으로 주문 특별 제작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가야프로덕션 (02)538-7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3-7 태광 B/D

"옛 비문 통해 선종사 본다"

역사연구회, 5년만에 '나말여초금석문' 완역

현지답사 위주 30편 실어

탑·불상등 銘文도 다뤄



한국 고·중세사를 연구할 때 금석문(金石文)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의 문헌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동시에 당시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박종기 국민대교수·국사학)가 펴낸 〈역주(譯註) 나말여초금석문〉(전 2권·혜안 刊)은 역사학계에서 이 시기 금석문 역주 작업으로 얻은 첫 성과로서 금석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깊이있는 역사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권 '원문교감편', 하권 '역주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주로 신라통일기 말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선종 승려들의 업적을 적어놓은 비문을 교감하고 우리말 주석을 붙여놓아 누구나 쉽게 선종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탑, 종, 불상 등의 명문(銘文)도 추가했으며 유교 및, 도교 등 다양한 역사적 내용을 담은 금석문도 함께 수록, 30여개의 금석문을 통해 당시 시대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록으로 '나말여초 선종사 연표'와 '나말여초 선종 법계도'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현지답사를 통해 비문글자를 직접 확인하고, 탁본도 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두 구해 대조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고미현(古彌縣)에 있던 서원종(西院鐘) 명문은 기존의 관독문 수록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원인이 탁본한 종이가 둥근 종의 표면에 둥글게 말려 있었다는 점을 간파한데서 생긴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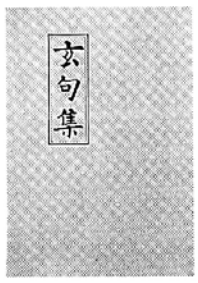
역사 연구자들이 금석문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있는 교감과 역주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나온 이 책은 역사연구회 나말여초연구반이 1990년 초부터 진행해 온 공동작업의 결실. 김영미교수(이대 사학) 등 11명의 연구반원이 금석문마다 발제자를 분담한 후 3차에 걸친 철저한 공동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역사연구회의 이번 역주서는 한국고대사연구소에서 출간한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2·3권,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펴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 및 고려편 1·2·3권에 이은 세번째 성과물이다.

김재경 기자

현구집 | 정원스님 편저

경전·선어록 등 玄句모아 사경 편집



정원스님(천안 평심사 주지)이 편역한 〈현구집(玄句集)〉은 스님이 2십여년간 공부한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글귀(玄句)'들을 직접 사경(寫經)·편집하여 번역한 문집이다. 그래서 다른 일반 경전 번역서와는 달리 수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불·조사들의 경구가 빠짐없이 들어있다.

또한 4·6배판 705쪽 분량의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 전체적인 교학의 흐름 파악과 함께 실제적인 수행지침서로도 적합하다. 한글자 한글자 뜻을 새기며 정성스럽게 쓴 단아한 글자체는 읽기에 부담이 없다.

상편에는 경전에 나타난 현구 43편을, 중편에는 논·소 및 조사어록에서 63편을, 하편에는 외울만한 송(頌)을 운율별로 모아 엮었다.

〈대흥기획 3만5천원〉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 박영재 지음

재가자 참선수행 체험 생생히 서술

화제외책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는 서강대 박영재교수(물리학)가 재가자로서 선가에 입문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입문후의 생생한 체험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 재가자들의 참선수행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생활선 입문서다.

특히 '禪과 물리학' 편에서는 선과 물리학의 상호관계를 밝혀 선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두'와 '선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두', 그리고 '선 수행의 필독서' 등을 소개하고 있어 누구나 읽어가면서 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저자는 "참선을 통해 길러진 아랫배의 힘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부딪치는 어려움을 화두를 뚫어내듯이 투과했고, 참선을 통해 길러진 부드러운 심성으로 인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불광 7천원〉

출판학제

성우스님 '범망경…' 펴내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인 성우스님이 송광사강원교재로 사용한 〈범망경 보살심지계품 강의초안〉을 발간했다.

이 〈범망경 보살계본〉 주석은 승장스님의 〈범망경술기〉, 의적스님의 〈범망경계본소〉,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를 각각 발췌, 해석을 달고 강의한 것. 토방, 1만원.

민족사, 팔리삼장CD롬 보급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태국의 담마카야 재단이 제작한 팔리성전의 로마나이즈판 CD-ROM 버전 1.0의 한국 대리점 계약을 맺고 지난 15일부터 보급을 시작했다.

팔리 삼장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이 팔리니카야 CD-ROM은 영국의 팔리성전협회(PTS)와의 협약하에 제작됐으며, 일본 등지에서도 이미 보급되고 있다. 값 15만원.

(02)732-2403~4

지구촌 '종교분쟁지도' 나와

지구촌 곳곳에서 분출되는 종교분쟁의 다양한 양상을 해당 지역 지도와 함께 다룬 종교분쟁 보고서인 〈종교분쟁지도〉(자작나무 刊)가 나왔다.

에이즈, 환경파괴, 인구폭발과 함께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종교의 대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이시카와 준이치(日 시사통신사 방콕지국장)는 "새로운 종교는 모두 앞서의 종교를 변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미얀마 불교도들의 반정부 지하투쟁, 힌두교가 양성하는 인도의 악순환, 끊임없는 유고의 종교분쟁, 종교분쟁의 대명사인 북아일랜드 분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자타카

내가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학창시절부터 심취해 있던 기독교사상이 내 시의 바탕에 깔려 나온 것들이 시집 4권 분량이었고, 최근에 낸 시집 〈홀로서기4〉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교에 관한 책들 중 나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상식 정도 만으로 쉽게 이해되어 지는 책은 많지 않았다.

예수의 일대기 등으로 엮어 놓은 기독교 성경에 비해, 지루하고 어려운 불경책들을 보며-겉만 봤다는 말이 옳겠지만,-좀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다.

내가 이책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내가 기다리던 책이 나왔다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다. 현재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희건씨가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을 소설 형태가 아니라 커서 배우는 어떤 교육보다도 훌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떤 종교적 모임에 가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하나이듯이 그 하느님과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회교의 알라신 그리고 우리전통의 조물주까지 모두 하나의 같은 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서 정 윤
〈시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법제시

동심에 들려주면 좋은 이야기

우화형태로 담담하게 엮어 놓았다. 우화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솝우화라든가, 또 아라비안나이트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자타카〉(문학수첩 刊)라는 말을 읽었을 때 나도 금방 이 책에 빠져들었다.

부처님이 마야부인의 몸을 빌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윤회의 고리들을 연결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풀어주었다. 어려운 경전들보다 이책 한권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만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는 곧 부처가 되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아니 손자들이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 이 책을 펴서 읽어준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신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인간에게 단편적으로 비칠 수 있고, 그 단편만 보고 인간들이 신의 명칭을 다르게 한 결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종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은 반대를 하고, 종교에서 볼 때 열성적이지 못한 사람은 찬성을 하였다.

나는 종교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종교에 얽매인다면 과연 종교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러면에서 볼 때 〈자타카〉라는 이책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으며, 또한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자료로써 이승의 업을 어떻게 쌓을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맑은 샘물을 마시는 기분으로 〈자타카〉를 읽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7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8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9	밀린다팡하	동 봉	홍법원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전남의 전통사찰 1(사찰문화연구원 지음)=우리나라 전통사찰의 맥을 찾아가는 전통사찰총서 제6권. 예향과 문화의 고장 전남도의 46개 사찰을 답사했다. 각 사찰의 위치와 창건, 연혁, 창건주를 비롯 주요인물과 성보문화재 등을 빠짐없이 소개했다. 사찰에 깃든 정신사적인 의미도 빠뜨리지 않았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2천원〉

▲중국 항공공법(텐루이성 지음)=향공(香功)은 중국 선종과 밀교의 정수를 섭취하여 성립된 기공법으로 중국에서 1천여년간 전래되어 왔다. 1988년 텐루이성대사가 공개한 이 공법은 수련을 통해 병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림 9천원〉

▲영혼의 X파일 1(차길진 지음)=〈일간 스포츠〉에 연재한 '영혼의 X파일'로 세인의 주목을 받은 차길진법사(후암정사)가 천도재를 지내면서 겪었던 영혼들과의 사연을 담고 있다. 선대의 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원인,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등을 밝힌다.

〈이성 6천5백원〉

▲한국불교전설 99(최정희 엮음)=10여년간 스테디불서로 자리매김하면서 9판째에 표지를 바꾸고 활자를 키워 수정판을 냈다. 이 땅의 불교전설은 인과응보와 보시공덕, 구법보살(求法菩薩)의 자비행, 효선(孝善)의 의미를 담아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고승의 법문보다 설득력이 강한 전설을 도별로 엮었다.

〈우리 8천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국토사랑 글과 그림으로"

'길에서 쓴 그림일기' 펴내는 이호신씨





◇이호신作 「지리산 쌍계사 전경」

"전국 산하 다니면서 만났던 감동 담았어요"

'선지식과의 만남' '가람의 풍광과 진경' 도 준비

잠깐이라도 세속의 귀를 씻어내라고 계곡의 물소리 굽이쳐 오는가. 어둠을 밀쳐가르고 흐르는 계곡물 또한 화개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 물에 몸을 씻고 문지방을 닥 넘으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말았다. 산간의 불이 꺼져서 처음에는 얼마쯤 갑갑하였으나 차츰 산능선에 눈길이 가고 용마루와 처마를 살피니 그 동선의 아름다움이 밀물처럼 다가왔다… ('흐느끼며 꿈꾸는 섬진강을 따라서' 中)

십여년간 전국을 발로 뛰며 산하와 이웃의 삶과 문화유산의 숨결을 가슴으로 안으며 화폭에 담아온 한국화가 이호신씨(40)가 그림과 함께 떠나는 국토기행산문집 〈길에서 쓴 그림일기〉를 내달중 펴낸다(현암사 刊). 3년에 걸쳐 〈환경운동〉지에 '그림과 국토기행' '길에서 산하에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을 한권의 그림일기로 묶은 것. 이씨는 이와함께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을 찾아 그 모습을 그리고 깨우침이 담긴 말씀을 글로 담는 '세기말 선지식과의 만남'이라는 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전국 곳곳 고찰의 아름다움을 전경으로 그리고 글로 묘사한 '가람의 풍광과 진경' 시리즈도 진행하고 있다.

〈길에서 쓴 그림일기〉에는 △길에서 만난 삶의 풍정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노래 △반도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 등을 주제로 28편의 글과 관련된 그림 50여점이 실렸다. 여기에는 흐느끼는 섬진강을 따라 나타난 쌍계사, 성철스님의 다비 모습을 묘사한 '다비장'과 지리산 등 전국의 유명 고찰과 산하를 찾아다니며 만났던 사람, 문화유적, 풍광, 식물과 곤충 등 우리 문화의 원류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속깊은 사랑을 한국화와 유려한 문체에 담았다.

"만남이 더할수록 상의상존(相依相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 진실되고 소박한 삶을 발견하게 되고 경건한 감동을 받습니다." '세기말 선지식과의 만남'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선지식을 글과 그림으로 묘사해 책으로 엮는 작업이다. 단순한 친견기이기 보다 갈등과 탐욕이 한층 가속되는 현대에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그리는 스님들의 모습은 엄숙한 근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의 모습이다. 선지식을 찾아가는 풍광에서부터 주석하는 암자 이미지, 스님의 일상생활, 사회에 주는 깨우침을 수묵담채로 소탈하게 묘사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현재 서옹 월산 혜암스님 등 3인이 완성됐다.

2년전부터 월간 〈해인〉지에 '가람의 풍광과 진경'이라는 제목으로 펼치는 사찰기행도 눈길을 끈다. 단순한 사찰안내기보다는 그안에 담긴 구도(求道)의 정신세계와 절이 왜 그곳에 있는지, 인공물이 어떻게 잘 자연과 어울릴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69〉

마음씻는 소리

休言潭水本無情 (휴언담수본무정)	못물 정없다 말하지 마소
厥性由來得一淸 (궐성유래득일청)	본성은 원래 하나의 맑음
最愛寥寥明月夜 (최애요요명월야)	사랑스럽다 요요히 밝은 달밤
隔窓時送洗心聲 (격창시송세심성)	창 사이로 때로 보내는 마음 씻는 소리

위 시는 무용대사가 삼연 김창흡(金昌翕)에게 준 시이다. 삼연은 당시 사대부로서 명성이 높던 사람이다. 당시에도 고관대작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높은 벼슬아치이면서 대표적 선비에게 주는 시이지만, 시의 내용은 은연중 불교적 법리의 일상성을 전하고 있다.

물은 맑음이 그 자성 본체이다. 맑고 평정하다 함이 유동으로 상징될 수 있는 정이 없다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원래의 본성이요, 이러한 본성이 있기에 고요한 밤의 물소리는 정려한 자의 마음을 씻기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 응용의 나름에 따라서는 정적인 맑음이 동적인 소리로 변하여 그 맑음의 본성에서 내마음의 맑음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항시 정려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산승도 이러한 지기를 만나면, 저 물이 동적인 소리로 변하여 맑음을 전하듯이 승속을 뛰어넘어 산사를 찾아준 세속의 선비의 마음을 맑힐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처지의 다름에서 간격을 두고 사는 터이기는 하지만, 회심의 한 편의 시가 마음을 잇고, 거기에 따라 두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 것이다. 비록 심오한 교리적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투영된 두사람에게는 교리 이상의 마음의 교분이 나타나 있다.

물 구의, 창에 가려 막혔다는 격창이라는 용어가 갖는 상징성도 재미가 있다. 어찌면 서로 가리운 처지의 막힘으로 볼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들려오는 물소리는 이 막힘을 뚫어 주면서 마음까지 씻어주고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마음은 물의 자성 맑음이듯이 청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끝 구의 두 사람의 정의를 깨끗하게 표현하면서도, 저 속세적 의미로 끌리지 않고, 오히려 스님의 처지로 안아 법리적 자성으로 요리한 점에서, 스님의 기개를 엿볼 수 있어 아름답다. 역시 일상사를 선으로 함축하는 스님들의 자세라 여겨 더더욱 머리 숙여진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12월 1~10일 대구 · 17~21일 광주서

'大瓦발우전' 여는 김용문씨



"불교전통 살린 색과 선 응용 도자기로 발우 만들었어요"

"대흥사에서 서산대사가 쓰시던 옥(玉)발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왕의 선물인 것 같았는데 보는 순간 발우란 것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스님들과 평생을 함께 하는 수행의 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예가 김용문씨(42)가 오는 12월 1~10일 대구 예술마당 솔(053-427-8141), 12월 17~21일 광주 무등일보 광주방송사옥내 라인문화관(062-672-1112)에서 각각 대와(大瓦)발우전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목(木)발우지만 〈사분률(四分律)〉에 의하면 발우에는 철발(鐵鉢) 이발(泥鉢) 금발(金鉢) 은발(銀鉢) 유리발 동발(銅鉢) 석발(石鉢) 등이 있으며 목발은 이교도의 기물이라 해서 금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목발우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색과 선을 응용한 와발우전을 마련한 김용문씨가 전시회에 선보이는 어시발우 사합발우 등은 분청과 옹기의 색감과 질감을 응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이나 초가집의 선을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선과 형태를 넣거나 끝이 뾰쪽하게 현대적 기법을 응용하고 연꽃이나 새 꽃 물고기등 자연에서 따온 무늬를 넣어 전통의 질그릇에서 느껴지는 멋과 함께 현대적 세련미가 돋보인다는 평을 들었다.

"스님들이 쓰는 식기지만 음식쓰레기 문제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발우를 생활용기화해 '검소하면서도 청정한 발우공양정신'을 되살렸으면 합니다."

처음 가진 지난 10월 서울 발우전시회에 생각보다 너무나 큰 호응이 있어 기뻤다는 김용문씨는 지난 89년에는 옹기로 만든 공양기(供養器)展을 개최한 바 있다. 〈숙〉

만해사상선양회 만해상 제정

학술 · 예술 · 포교 · 실천상등 내년 삼일절 대상자 시상

백담사에 만해기념관 기공

만해 한용운스님의 정신을 이시대에 구현시키기 위한 '만해상'이 제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상임대표 김재홍)는 지난 10일 백담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상금 4천만원 규모의 국내외적으로 권위있는 상으로 만해상을 새로 제정하고, 내년 3월 1일 삼일절을 기해 첫 시상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 상금 2천만원의 대상인 본상은 만해스님의 불교사상 민족정신 예술혼을 선양하는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각 분야상으로 학술상 예술상 포교상 실천상 등으로 나누어 5백만원씩 시상한다. 심사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쌓은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감안해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지난 10일 백담사에서 만해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 만해유적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해기념관은 총 1백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 전통건물로 건립되며 만해사상을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만해사상연구소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실무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시관에는 '님의 침묵'등 만해스님의 저서와 친필 원고, 유품 등이 상설 전시될 전망이다.

선양회는 또한 매월당 김시습과 한용운스님이 주석하며 참선과 문학에의 열정을 꽃피웠던 문학유적지 관음전도 복원해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건립중인 백담사 만해기념관 조감도.

문화 소식

'장애인 재활 음악회' 열린다

'첼로스님'으로 잘 알려진 법현스님(대보사)이 주최가 되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연다. 오는 29일 저녁 7시30분부터 여의도 쌍용증권빌딩 300홀에서 열리는 '더불어 사는 음악회'는 피아노 바이얼린 첼로 독주와 록가수공연, 관악 5중주협연 등으로 펼쳐진다. 수익금은 환체어 보청기등 장애인의 재활용구를 마련하는데 쓰여진다. (02)373-6511

용인대에 불교회화 대학원

예술 체육 전문대학인 용인대에 불교회화전공 대학원과정이 개설, 내년 3월 개강을 앞두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미술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화 세계화하여 우리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되는 불교회화전공 대학원은 실기 중심의 전문과정이다. (0335)30-2790

백순실씨 '동다송' 연작展

茶를 노래하는 동양화가 백순실씨가 오는 28일까지 신사동 표화랑에서 '동다송-생명의 변주곡'을 주제로 초대전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의스님의 '동다송'을 주제로 대작 15점이 출품됐다. (02)543-7337

30일 부산찬불음악합창제

부산지역 사찰합창단을 지도해온 이순희씨가 주관하는 찬불음악합창제가 오는 30일 저녁 6시30분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가팀은 관음사 대각사 동명불원 서운암 약수법단 부산불교연합회 가곡가요부르기회 등 8개팀.

좋은 집이름 보급 '당호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광주 금호문화회관에서 불교문화대학 기금마련을 위한 당호전(堂號展)을 갖는다. 좋은 집이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당호전에는 불모 석정스님 전각가 안광석옹 은초 정명석옹 등의 글씨로 '다연원(茶淵院)' '학고대(學孤臺)' '영불각(迎佛閣)' 등 50여점의 당호가 전시될 예정이다. (062)676-2500

박대성씨 경주주제 묵화展

천년 고도 경주를 주제로 한 박대성 묵화전이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관훈동 가나화랑에서 열린다. 서예기법의 운필효과를 최대한 살려 불국사전경을 한 화폭에 담은 '천년배상', 칠불암을 담은 '칠불여명', 불국사 가람과 석굴암을 재구성한 '불밝힘굴' 등 대작 37점이 소개된다.



전통문화계승 팔관대재 성료

삼국시대부터 국가의식으로 치뤄진 불교전통문화의식 팔관대재가 태고종 총무원 주최로 지난 18일 대전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94년부터 매년 열어온 팔관대재는 1부 법요식 2부 팔관대재 3부 영산재 시현 및 마정수기 4부 관등법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덕암스님(태고종 승정)에 의해 8관계상(八關戒相)이 설해지고 전대중의 108참회와 서원문 봉독이 있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 大明堂 (생활터) (묘지터) 急賣
위치 : 충북 단양 적성면 錦繡山 최그요지
※ 매표IC에소 15분 관광지정지, 버스진입가(왕궁터 형국)
■가격: 평당 45만원(터는 明堂, 값은 공동묘지가격)
■기타 동남향, 남한강, 도담삼봉아래 경치 최고地
연락처 :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小白山 령통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및 휴양하실 몇분을 모십니다.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숙식 제공 및 1인1실 · 기름보일러
연락처 : (0444)22-1094 22-0347

모십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 노전 · 부전 스님을 초빙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연락처 : 902-2663 903-3361

20년 전통의 모범업소
여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관허 11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붙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힙장
■초혼 : 의사, 박사, 약사, 판 · 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재혼전문
■앨리트 결혼 · 중매
■책임성혼
문의 전화 | 주간 (02)783-1777 야간 (0343)47-1046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사람 : 하동수
신문을 보는 즉시 연락바란다.
누나 하미영

포교당 안내
●위 치 : 망우 사거리 ●평수 : 30평
●보증금 : 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천만원
●연락처 : 02)494-3929 0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늙지않는 피부관리(남 · 여)
기미 · 여드름 · 검버섯 · 늘어진얼굴
불로항피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49세 男
불교도반으로 남은생 같이 하실분 기다립니다.
◈ 연락처 : 샌프란시스코 510-276-8845 임지수 (부재시 녹음 가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다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檀吉 I.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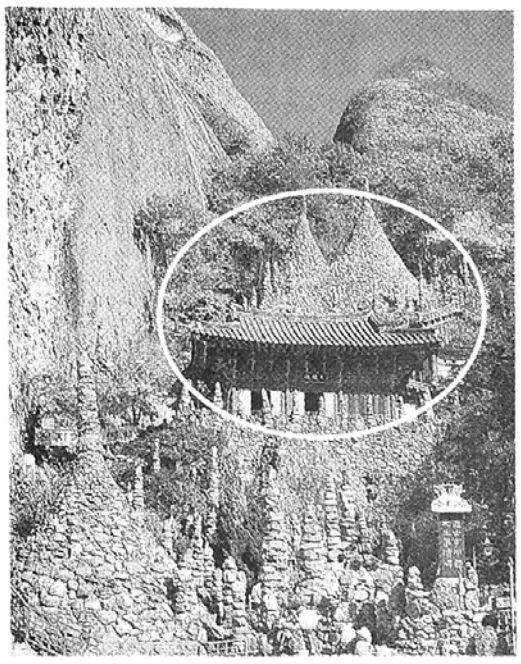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영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락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보증금 300만원
시설일체 180만원 · 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을 모십니다
역학과 염불에 능하신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 중심지 포교원
연락처: 051)467-5200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최근 진안군이 마이산 탑사의 대웅전 산신각 천지탑의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와 충격을 주고 있다(원 안은 진안군이 철거를 지시하는 부분).

마이산 탑사 '폐사 위기'

진안군, 대웅전·천지탑등 철거 요구 공문

"관람료 30% 징수위한 郡횡포 부당" 여론

불가사의 돌탑으로 알려진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의 천지탑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진안군(군수 임수진)은 군 소유토지에 건립된 탑사의 대웅전과 산신각, 천지탑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탑사와 지역불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안군의 이러한 처사는 마이산 탑사 돌탑중 가장 큰규모인 천지탑이 88년부터 도지정 문화재로 공식지정됐음에도 철거를 요구하는 문화재훼손정책의 극치. 이와 아울러 문화재 사찰인 마이산 탑사의 전 건물인 대웅전과 산신각철거 요구는 글 사찰을 폐쇄하라는 처사여서 지역주민 및 불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찰관람료문제. 88년 마이산 탑사가 관람료 사찰로 지정되면서 진안군은 군 소유부지 2백97평이 사찰경내에 있다는 이유로 사찰관람료의 30%를 강제징수해 왔다. 이에대해 탑사는 군의 사찰관람료 30% 강제징수는 부당하다며 97년 20% 98년 10%로 줄이는 대신 매년 군 소유땅 임대료로 2천만원을 군 재정으로 납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소유토지에 일부가 침범돼 있다는 이유로 대웅전 산신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한전 종각 요사채 신축 등 중창불사에 필요한 관람료 예치금 사용승인을 지연하고 있다.

이에대해 탑사주지 왕선스님은 "군에서 대웅전 산신각과 문화재인 천지탑의 철거를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부와 문화재관리국은 "탑사의 존재와 중창불사가 탑보존에 관련된 만큼 문화재보호법 제 20조4항에 의거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환경정화사업에 해당된다"며 "문화재 주변 시설변경및 증·개축은 문화재보존료를 환원받아 환경정화사업을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문화재보호를 위해 사찰건물을 철거하라는 군의 횡포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원우 기자

방송화제

BBS '시사매거진'

사회현상 쉽고 정확하게 전달

불교방송의 유일한 사회시사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PD 문태준)'이 각종 사회현안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내 불자들에게 유익한 시사프로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가을 개편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25분~8시에 방송되는 시사매거진은 그동안 쓰레기소각장 문제, 의과대 신설문제, 인권문제, 헌혈증서 활용문제 등을 다뤄왔다.

특히 월요일에는 취재특집코너를 마련, 현장취재리포터 노유진씨를 투입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토요일에는 토요기획 시간을 마련, 한주간의 쟁점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25일 월요취재특집 시간에는 수학능력시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수능이후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에 대해 학부모, 학생, 교육부 등의 의견을 담아냈다.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문제를 불자들이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문PD는 "앞으로 단편성 시사문제보다는 일반보도에서 외면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눈을돌려 보다 심층적인 취재로 더욱 정확하고 깊이있는 시사프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MBC다큐 '인류, 인류의 유산' 방영

12월 5·6일 佛·伊등 6개국 실태점검

MBC TV는 오는 12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경부고속전철의 경주노선결정과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오는 12월 5, 6일 밤 11시에 세계각국의 실태를 점검한 창사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인류, 인류의 유산'(윤혁 연출)을 방송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말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캄보디아, 일본, 한국 등 6개국의 현장을 돌며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외문화유산 현장을 취재, 개발과 보존이 현대인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 보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혜롭게 전승해갈 수 있는 해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

제1부 '사라져가는 인류의 흔적들'편에서는 존립의 위기를 겪고있는 문화유산의 현장들과 그 속에서 실제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있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취재, 개발과 보존문제에 접근한다. 또한 불편한 관광도시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려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소개한다.

제2부 '인류의 선택'편에서는 문화유산과 현대인의 삶을 조화롭게 추구해가는 문화선진국들의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는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유적의 복원을 통해서 20년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캄보디아를 집중 소개한다.

불자연극인 김성녀씨 '강단 서다'

성균관대서 '연극의 이해' 강의 수강신청자 몰려 분반수업



불자 연극인 김성녀씨〈사진〉가 재미있는 연극강의로 캠퍼스 스타교수로 떠올랐다.

지난 2학기부터 성균관대에서 '연극의 이해'라는 과목을 맡아 교단에 선 김성녀씨는 타고난 배우근성과 유창한 말솜씨로 이 과목을 교내 최고의 인기강좌로 만들어 또한번 다재다능함을 과시하고 있다.

김씨는 연극, 뮤지컬, 창극, 드라마배우는 물론이고 MC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끼를 강단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김씨는 이미 올초부터 성균관대 사회교육원의 연기과 주임교수도 맡아왔다.

'연극의 이해'는 수강신청일에 몰려드는 학생들로 정원을 넘겼고 분반까지 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역 연극인의 이론수업이라는 점이 일단 이목을 끌고 다채로운 강의내용이 인기비결. 마당놀이, 꼭두각시 공연 등 현장의 배우들을 직접 초청하고,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연기를 시키고 평을 해주는 등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가 신세대 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책 속의 내용을 말할 때 보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무대위에 섰을 때처럼 학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김성녀씨는 의욕을 폈다.

종단소식

총화종 내년예산 36억원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지난 15일 제37차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97년예산 35억 6백95만원을 확정했다. 종회에서는 △총무원사 이전 △가사 품수별 차등표시 △원로의원 겸직금지 △부산 경남종무원 분할운영 등을 결의했다.

단종대왕 영가천도재 창신동 원각사, 12월3일

창신동 원각사(주지 법해)는 오는 12월3일 극락보전에서 단종대왕 승하 539주년 추모 영가천도 및 1만관등법회를 봉행한다. 단종대왕 영가천도재는 원각사가 단종비 홍씨의 기도도량인 만큼 올해부터 단종승하일에 개최된다.

최정산 최정사(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지 금봉)는 17일 서암스님이 법사로 자리한 가운데 5천등 회향법회와 함께 8각7층으로 된 국내 최초 청동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동탑은 전체길이(전고) 9m30㎝, 직경 3m40㎝, 두께 1.7㎝로 혜성불교미술원(원장 김용섭)이 3년 6개월의 조성기간을 거쳐 만든 것으로 월정사 8각9층탑을 모델로 했다. 그러나 월정사탑과 달리 7층탑이며 탑신부 및 기단부에 금입으로 53불과 8면보살, 8면금강역사상을 양각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총무게 6톤에 구리와 주석을 92:8의 비율로 섞어 보존성을 높인 이 사리탑에는 불사리 3과가 탑신부에 봉안됐다. 〈윤〉

국내 첫 청동사리탑

대구 최정사 17일 제막





진각종 도선동 '밀각심인당' 완공

진각종조 회당대종사가 수도서울 교화의 첫발을 내디뎠던 도선동 밀각심인당 개축불사가 지난 21일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연면적 1,762평에 건평 857평인 밀각심인당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사무동과 208평 강당과 심인당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2층의 집회동을 갖춰 지역교화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개축불사에서 락혜통리원장은 "종조님의 얼이 서려있는 이곳은 종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며 "진기50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울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탁소리

큰 스님의 법석

임 연 태 〈취재3부 차장〉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

큰산에 절이 있고 그 절에 큰스님이 있어 속진의 중생들은 솔잎 같이 푸른 법문을 듣고 삶의 시름을 달랜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세속의 번잡을 곱어보며 단비같은 지혜의 말씀을 내리시는 큰스님들을 우리는 존경해 마지 않는다. 철철마다 사찰을 순례하고 큰스님을 친견해 감로법문을 듣는 우리의 신행풍습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최근 이런 저런 비리뉴스와 부정부패 소식으로 폭발이라도 해 버릴것 같은 서울에 큰스님이 오셨었다. 그냥 불쑥 이 있어 오신 것이 아니라 스님들과 재가신자를 위해 법석을 마련해 놓고 오셨다. 법회는 '참사람결사 대법회'였고 사흘 일정이었다. 참사람이 없는 세상에 참사람의 씨를 뿌리고자 마련된 이 법회는 백양사 고불총림이 주관했고 상당법어는 총림의 방장인 서옹스님이 사흘간 계속했다. 그러나 모처럼 큰스님의 법어를 들을 수 있는 이법회에 스님들의 관심은 거의 '0점'에 가까웠다. 사흘간 동참한 스님은 50명을 넘지 못했고 재가신도는 1천여명을 웃돌았다. 결제철도 아니고 홍보가 전혀 안된 것도 아닌점을 감안하면 뭔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일이다. 큰 스님의 법담은 재가자에게만 보배가 아니다. 승가에도 번개같은 훈시이고 청솔같은 귀감이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진짜 귀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 법회의 첫날 법상에 오른 방장스님의 표정은 밝지않아 보였다. "결제때마다 찾아드는 수좌들을 다 맞지 못해 안타까와 하다가 서울에서 크게 모여 법을 나누고자 해서 마련된 법회인데 수좌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첫마디가 스님의 심기를 보여 주었고 법회를 준비한 실무자들은 죄송스러움을 감당키 어려웠다.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어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풍토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행사야말로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종단적인 관심사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방송가 소식

'티베트불교' 비디오 출시

불교TV를 통해 방영됐던 대하 다큐멘터리 '티베트불교'가 비디오로 출시됐다.

신비의 영상과 함께 밀교문화의 진수를 화면에 담은 티베트불교는 총 30부작에 걸친 전편을 15개의 테이프로 선보인다.

'티베트불교'는 가장 높고도 험준하기로 유명한 칭하이 고원위에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창출한 티베트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그들 삶의 가장 큰 물줄기를 형성한 불교와 그밖의 내밀한 정신세계를 아낌없이 보여준 다큐멘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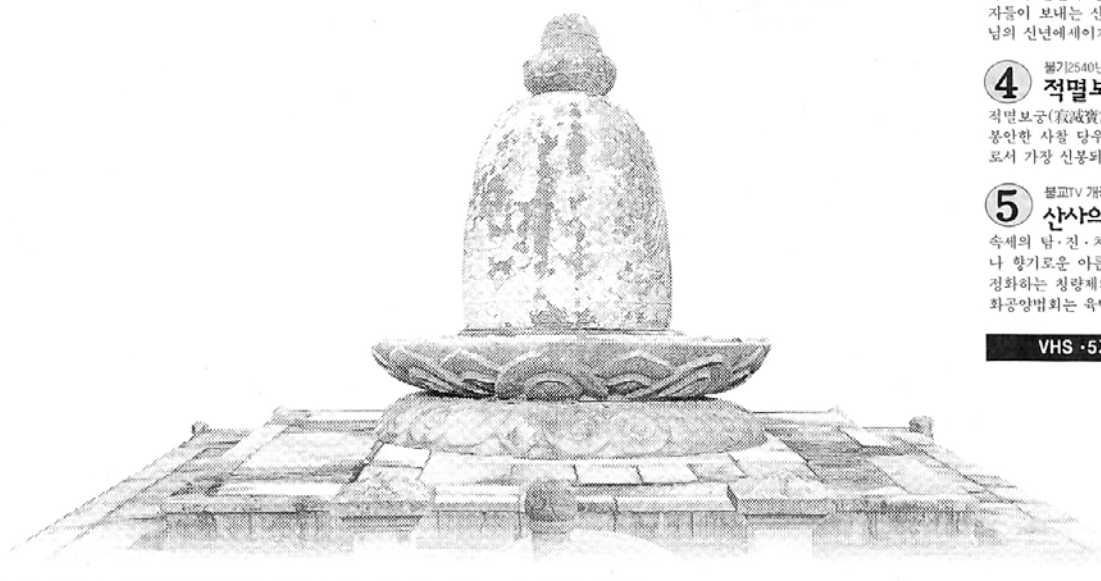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돕기 바자회 12월 6~8일 녹수청산서

불교TV자원봉사단과 육법공양회는 연말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돕기 특별바자회'를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에서 연다.

이번 바자회에는 겨울 신행생활의 필수품인 재가불자 신도복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그 판매수익금 전액을 근로자 위문법회에 사용하게 된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 석종부도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1 불교TV 개국특집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불보종찰(佛寶宗刹)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2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영상포엠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미. 절제된 카메라앵글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3 불기2539년 신년영상에세이
산중편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땅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네분 스님의 신년에세이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4 불기2540년 열반절특집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성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5 불교TV 개국특집
산사의 향음 · 만등만화공양법회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고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청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의식 중계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 · 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btn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

현불뉴스

예산심의 임시종회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계종 제124회 임시중앙종회가 22~26일까지 열린다. 중앙종회는 15일간의 123회 정기종회에서 의장단선출과 각 상임분과위 구성, 종무감사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총무원 부서증설 및 폐지에 따른 동의요청의 건에서 종헌개정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종회기간을 넘겨 자동폐회됐었다.

포교대상 후보접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제8회 포교대상 수상자추천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추천분야는 △청소년포교 △군·경찰 포교 △사찰 포교 △문화·예술 포교 △유아·어린이 및 특수포교 △불교단체 포교 △국제포교 등 7개 부문으로, 재적사찰 주지스님 또는 불교단체장의 추천서와 포교활동 공적조서, 추천자 이력서를 포교원으로 보내면 된다.

중앙승가대 정관 변경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19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34차 이사회(이사장 월주)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규대승격에 따른 절차의 하나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을 총장으로 변경하는 등 정관을 변경했다.

'나눔의집' 법인 인가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원장 혜진)이 지난 18일 경기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노인양로시설로 인가 받았다.

이에따라 나눔의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80%를 지원받게 됐으며, 현재 국내에 있는 1백60여명의 정신대할머니들을 점차적으로 확대 수용할 방침이다.

29일 군승의 날 법회

군불교발전과 진흥을 위한 제28주년 군승의 날 기념 및 군불교진흥회 사단법인 설립축하법회가 오는 29일 오후 6시 국방부 내 국방회관 연회실에서 봉행된다.

군승단(단장 강남석)과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법회는 군승의 날 28주년 및 군불교진흥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자축하는 자리로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각사지 복원 '물거품 될듯'

건교부 군위댐 계획 수립…교계·郡의회 철회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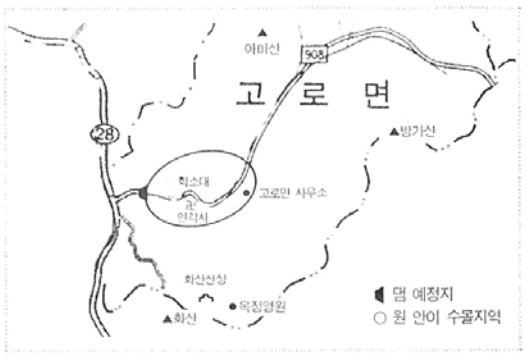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천년고찰 인각사(642년 의상대사 창건)지가 댐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건설교통부가 인각사지에서 불과 5백m 떨어진 곳에 추진중인 군위댐(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건설계획과 관련 군위군, 군의회와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내년초 최종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군위댐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천 의성 경산등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길이 1백38m, 높이 39.5m, 저수량 3천1백만톤 규모의 군위댐이 건설되면 인근 7개리 2백77세대 7백74명의 이주가 불가피해지고 14개리 5백73세대 1천4백94명이 상류지역에 고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군위군은 고로면 1/3이상이 댐 영향권내에 포함되고 면소재지가 수몰되는 등 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어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군위댐이 건설되면 인각사지(사적374호)는 수몰될 뿐만아니라 보각국사비 및 부도탑(보물428호)의 이전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인각사지 복원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군위군의회(의장 김형팔)도 지난 6월 '고로지역 댐 건설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댐건설 철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 결의문은 군위댐이 건교부 농림수산부 환경부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중인 점을 지적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시책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14일 건교부를 방문하여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게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지 공채1호로 부임한 인각사주지 대원스님은 "경북도에서 인각사지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를 위해 이미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라며 "댐건설은 인각사지 복원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수덕사와 일본 비조사는 지난 13일 비조사에서 백제 정림사지 5층석탑을 재현한 5층석탑 낙성식을 거행했다.

백제 정림사지석탑 재현 낙성

수덕사, 日비조사에…兩사찰 결연 10돌 기념

수덕사와 일본 비조사는 지난 13일 비조사에서 두 사찰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및 5층석탑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수덕사주지 법장스님과 비조사주지 야마모토 호준(山本寶純)을 비롯 김세택 오사카총영사, 이와모토 마사오 나라현부지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두 사찰은 지난 87년 불교문화 교류와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3년전 7주년 기념법회에서 수덕사는 비조사에 백제 정림사지 5층석탑 모양의 석탑을 기증하며, 비조사는 수덕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수덕사와 비조사는 2년마다 교환방문을 해오고 있다.

두 사찰의 자매결연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비조사에 봉안된 석탑은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을 재현한 것으로 한국에서 조성해 일본에 보낸 것이다. 백제에 의해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석탑이 일본에 세워지기는 처음이다. 비조사는 5백88년 백제와 고구려인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일본 아스카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법장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백제의 석탑을 후손의 지혜로 재창조되어 비조사에 봉안한 것은 양국의 불교문화 발전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덕사 성보전시관에 아스카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할 특별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종사에 불…대웅전 전소

방화추정…경찰 누전발표 안일수사

한동안 주춤했던 사찰방화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7일 새벽 2시 30분경 강북구 쌍문동 소재 법종사(주지 동흔)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50여평의 대웅전을 전소시켜 1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법종사 주지 동흔스님은 "범인검거보다 전기누전이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결론 지으려는 경찰의 안일한 수사로 제2, 3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중수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종사 방화사건은 지난 5월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 등 강북구일대의 연쇄적인 방화사건이후 경찰이 특별관리 사찰로 지정, 경계근무를 해왔으나 최근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방화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530여 소속사찰 실태조사키로

선학원 분원장회의

전국 5백30여개의 선학원소속 사찰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을 분원장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종단과의 현안문제로 소홀했던 재단의 발전을 위해 분원실태조사와 분원장수첩을 제작하기로 했다.

1백20여명의 분원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8·27 종단과의 대화합'을 환영하고 종단과의 화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단발전 방안으로 재단발전기금을 계속 모금하고 자체 연수원과 교육원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선학원은 지난 7일 재단 이사회에 종단과의 화합을 위한 협의기구 임원으로 오원(칠보사 주지) 성문(묘관음사 주지) 정관(미륵대원 주지) 성우(보광사 주지)스님을 선임했다.

세계 100여개 나라 불자들 '불교고사' 치뤘다



◇동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21일 대만 불광산사 주최로 실시된 세계불교고사를 치뤘다.

전세계 불자들이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통해 우열을 겨뤄 화제가 되고 있다.

대만 불광산사가 전세계 불자들의 잠재력계발과 신심함양을 목적으로 마련한 '96 세계불교고사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각국의 고사장에서 실시됐다.

대만 불광산사 문제 출제
초등·중등·성인부로 나눠
입상자 취합 발표예정

이번 불교고사는 초등, 중등, 성인부등 3개부문으로 나눠 초등부와 중등부는 만화문답식, 성인부는 기초적인 불교상식과 교리등의 인지도를 묻는 문항을 출제, 대만 한국 일본등 세계 1백여국에서 치뤄졌다.

동대부고도 지난 18일부터 1,2학년 1천2백여명의 학생들이 불교고사를 실시했다. 박영동교법사는 "종교교육시간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며 "학생들 스스로 불교 지식의 정도를 점검함은 물론 종교교육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사에서 90점이상을 취득한 응시자에게는 티셔츠를, 80점이상은 열쇠고리가 상품으로 주어지며 입선자는 오는 12월 20일자 중국시보와 연합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기초선원 첫교육 내년 2월부터

교육원·운영위 일정·대상 합의…장소는 동화사

조계종 기초선원의 첫 집체교육은 병자년 동안거가 끝나는 97년 2월부터 30일 내외의 기간동안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무여(축서사 주지) 원융(해인사 선원장) 인간(범어사 선원장) 진허(동화사 금당선원장) 도법(실상사 주지) 향적(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스님 등 기초선원 운영위원과 교육원 관계자등은 지난 19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기간 장소 대상 교과목 등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집체교육 대상은 병자년 동안거를 성만한 기초선원 사미(95, 96년 수계사미)로 정해졌으며 교과목은 부처님일대기(5회), 인도불교사(5회)를 비롯 사미율의(2회), 습의(3회), 좌선의(2회), 박산무의 선사 선경어(7회) 등이 채택됐으며 3차례의 특강을 포함, 1회 2시간씩 총 27회의 강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선사로는 성우 무여 진허스님 등이 추천됐다.

또한 97년 가을부터의 산철교육은 선교육 후방부체제로 하기로 했다.

기초선원의 수업년한은 4년이며 결제철에는 기초선원으로 지정된 제방선원에서 안거하고 봄가을 해제철에는 산철살림을 통하여 기초선원 중심도량등에서 집체교육을 받도록 했다. 안거는 하안거 또는 동안거를 1번의 안거로 하여 초급 1·2안거, 중급 3·4안거, 상급 5·6안거, 연수과정 7·8안거로 돼 있으며 기초선원 이수자에게는 종단의 기본교육기관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된다.

통도·범어사등 5곳
교육원, 승가대인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18일 제23차 교육원회의를 갖고 통도사 백양사 범어사 봉녕사 청암사승가대학을 인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원은 이들 승가대학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않은 승가대학은 1년내에 보완토록했다. 한편 동학사 송광사 해인사 법주사 삼선승가대도 인가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포교사 232명 탄생
수석합격 김동균씨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20일 제2회 포교사고시 결과 3백39명의 응시자 가운데 2백32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수석합격은 김동균씨(수원지방법원 등기상담관, 차석합격은 강기태씨(수원포교당 기획실)가 각각 차지했다. 최고령합격의 영예는 이형식씨(74·부산불교교육원)가 안았다. 〈인터뷰 4면〉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느니, 세간법에 들어가면 세간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고 법계세계에 들어가면 법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사찰의'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 록 내 용 ▣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새벽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앙굴리말라, 2)용녀의 성불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법회안내 등을 주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크기/신국판(152mm×223m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법보시 특가/1권당 1,200원

《온라인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738-8682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 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주문일부터 5일이내 납품가능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건강백세 ㉛

비장(脾臟) ①

한의학에서는 소화계를 비위(脾胃)라고 부른다. 특히 비장(脾臟)은 소화계를 대표하는 장기로 보아 중앙토(中央土)로 설명하며 각장기에 영양을 고루 공급해주는 장기로 여겨 중요하게 보았다. 즉 하늘(天)과 사람(人) 사이를 연계해 주는 중간역할로 생각하여 하늘의 혜택으로 식물을 생산하여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는 땅(土)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장의 색도 땅의색인 황색으로 보아, 음양오행 이론에서 오색중 황색을 취하여 설명하였다. 인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영양인 수곡(水穀)을 땅에서 얻어 공급하므로 이해가 가는 이론으로 생각된다.

구강(口腔)에서부터 항문(肛門)까지의 소화기관 가운데 비장은 소화효소 분비를 주관하여 화학적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위는 음식물을 소화되기 쉽게 죽(粥) 처럼 만들어 주는 물리적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비장은 '지라'라고도 불리우는데 위의 왼쪽 아래옆에 누은듯한 자세로 있으며 소화효소와 임파구(淋巴球) 생성에 깊이 관여한다. 민간요법으로 일부 빈혈환자들이 '지라를 날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하여 생것을 갈아서 복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비장이 조혈기관중 하나이므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여 복용 해보는 장기요법(臟器療法-Organotherapy)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은 검증된 바 없으며 다만 기본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생충이나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본다.

소화 효소·임파구 생성에 관여
신경과민 영양공급기능 저해



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생각(思)을 주관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소화계가 우리몸의 모든 영양공급 역할의 바탕이 되고 원만한 영양이 공급되어야만 바른 정신력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이 자율적으로 수행됨을 볼 때에 연관성이 이해된다.

그러므로 생각 즉 신경의 과민은 비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장기능과 상호 연관작용을 가져 간염이나 간경화등의 질환에 합병하여 비장종대(脾臟腫大) 등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경건…염원…찬탄… '법음의 바다'

창작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 초연 대성황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음성공양 천도재
2천여 사부대중 지장보살 정근 '한 목소리'

백천만겁 지난 세상 사는동안 지은 죄를 눈물 흘려 자극하게 대성앞에 참회하며 지장대성 본을 받아 모든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나누고자 지극하게 서원하니 저희들의 이 소원을 애민으로 거두소서 불의 바다 피어난 향기 연꽃이여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무대에 선 4백여 합창단이 2시간의 공연을 마무리하는 지장보살 정근을 하자 객석의 2천여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따라 지장정근을 하며 대공연의 하나래에 동참했다.

지난 19일 저녁 7시부터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오백중 황색을 취하여 설명하였다. 인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영양인 수곡(水穀)을 땅에서 얻어 공급하므로 이해가 가는 이론으로 생각된다.

구강(口腔)에서부터 항문(肛門)까지의 소화기관 가운데 비장은 소화효소 분비를 주관하여 화학적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위는 음식물을 소화되기 쉽게 죽(粥) 처럼 만들어 주는 물리적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비장은 '지라'라고도 불리우는데 위의 왼쪽 아래옆에 누은듯한 자세로 있으며 소화효소와 임파구(淋巴球) 생성에 깊이 관여한다. 민간요법으로 일부 빈혈환자들이 '지라를 날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하여 생것을 갈아서 복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비장이 조혈기관중 하나이므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여 복용 해보는 장기요법(臟器療法-Organotherapy)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은 검증된 바 없으며 다만 기본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생충이나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본다.

소화 효소·임파구 생성에 관여
신경과민 영양공급기능 저해